

문화 서울

문화서울



〈대지의 메아리: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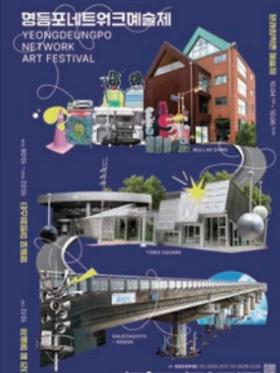
지난 9월 북촌 가회동에 개관한 예술 공간 푸투라 서울이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들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레픽 아나들 스튜디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연에 특화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인 '대규모 자연 모델(LNM)'을 기반으로 대량의 자연 데이터와 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 자료, 전 세계 16곳에서 수집한 사진·소리·3D 스캔 데이터를 학습해 완성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2월 8일까지 | 푸투라 서울 | 02.3676.1000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지휘자 정명훈과 이탈리아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린다. 지휘자가 오랜 시간 교류해온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이다. 이번 공연은 콘서트 버전으로 공연되며, 지휘자와 성악가 연주자뿐만 아니라 관객이 음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는 1853년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를 세계 초연한 극장의 오케스트라로, 그 정통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10월 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668.1352

2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
영등포구의 예술공간과 기획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결하는 네트워크 축제인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가 진행된다. 문래창작촌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래창작촌 예술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MZ세대 신진 예술가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등포 아트페스타' (2일부터 6일까지), 신진교 하루 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축제 '다리 밑 예술제' (12일)가 차례대로 개최되는 것.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문화재단 누리집 (ydp.c.or.kr)과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 인스타그램 (@ydp_network_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살아 있는 건, 아름다운 것." 배우 김성녀가 1인 32역으로 분하는, 오직 그만을 위한 작품 〈벽 속의 요정〉이 재공연된다. 스페인 내전 실화를 토대로 한 원작을 극작가 배삼식이 각색했으며, 손진책이 연출하고 김철환이 음악을 맡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해 완성했다. 아버지 없이 행상을 하는 어머니와 지내던 아이는 어느 날 벽 속에 요정이 있다고 믿게 되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5씨어터 | 02.399.1000



4

〈나눔지구-네버랜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나눔 문화에 집중한 전시. 최근 부각되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초점을 맞춰 서초구 지역 일대를 관찰 및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 과정을 기반으로 현시대의 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7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연예술로 들썩이는 가을, 음악·무용·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전국 각지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제가 시작된다.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38일간 140여 편이 무대에 오르는 것. 대학로 마로니예공원과 청와대 헬기장, 서계동 국립극단 터에서 야외 공연이 열리고,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는 '또 한 번 빛나는-연극'이라는 제목으로 6편의 작품이 연이어 공연된다. 명동예술극장에서는 '또 한 번 빛나는-무용'으로 마련된 중규모 작품 5편을 만날 수 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K-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은 패키지 입장권을 기획해 할인율을 제공하거나 코레일과 협력해 준비한 철도여행상품으로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kstagefesta.kr)이나 인스타그램 (@kstagefesta)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도심 속 숲으로 떠나는 계절 여행, 피크닉 in 나루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도심 속 휴식 페스티벌 '피크닉 in 나루'가 10월 5일 오후 5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에서 열린다. 서울 한복판 우거진 숲속에서 대중가요·클래식 음악·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전 세대가 힐링할 수 있는 가을밤 축제를 선사한다. 민고 들는 보컬 에일리, 성악부트 트로트까지 팔색조 가수 손태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리톤 김동규 등 화려한 라인업을 마련했다. 축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6



10. 5. (토) 돈의문박물관마을 곳곳
종로랑 축제 2024
10월 5일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곳곳에서 종로랑 축제 2024를 개최한다. '종로랑 축제'는 구민이 예술가가 되는 특별한 생활예술축제로,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33개 팀이 공연·체험·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선보인다. 또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부대행사로 도심 속 영화관, 전통놀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이날만큼은 종로에서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8

1

〈인공 원상: 신화〉 ©Relix/Anadol Studio

©DOHEE/서울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연극 <빵아>

역사를 관통한 장총과 역사를 써먹을 공리만 하던 작가의 뜨거운 만남! '낮은 장총 한 자루'에 담긴 우리의 현대사와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소비하는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 <빵아>가 금천문화재단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된다.

10월 9일 |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9



2024 궁중문화축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서울의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기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한글날과 주말을 맞아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경복궁에서는 한복 특화 프로그램으로 '왕가의 산책'을 비롯해 국악 공연과 체험 등 콘텐츠를 밤 정취와 함께 즐기는 '경복궁 한복 연향'이 열린다. 2022년 첫선을 보인 후 호평을 받은 발레 <수제전>도 사흘간 공연을 앞두고 있다. 창덕궁에서는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고요한 아침의 궁을 산책하는 '아침 궁을 깨우다'가 진행되고, 창경궁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정조·해경궁 흥씨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가 작품의 실제 배경에서 공연된다. 각종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됐다. 4대 궁을 비롯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궁패스'도 한정 판매된다.

연극 <햄릿>

예술의전당이 기획하는 토월정통연극시리즈가 올해 신유청 연출의 <햄릿>을 선보인다.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조승우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최근 드라마에서 명품 조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성근이 클로디우스 역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온 정재은은 거트루드 역으로 낙점됐다. 유머와 정극을 오가는 연기로 주목받는 김영민은 호레이쇼로 무대에 올라 햄릿의 삶과 죽음을 후대에 전한다. 이 외에 총 15명의 배우가 23일간 원 캐스트로 무대를 완성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1668.1352

10 11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와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에서 각각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은·김기민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 '블록버스터 발레'로 불리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무대가 성사된 것. 두 사람이 2009년 <백조의 호수>로 국내 무대에 선 이래 15년 만이다. 각자의 발레단뿐 아니라 세계를 누비며 관객과 만나고 있는 만큼, 더욱 성숙해진 두 사람의 무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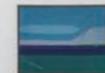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02.587.6180



12

©국립발레단

13



<유영국의 자연: 내면의 시선으로>

1세대 추상화가 유영국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작가 사후 최초로 공개되는 소품을 포함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의 유화 작품 34점, 작가의 삶이 담긴 아카이브 자료 등을 망라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에 깃든 '중용'의 미덕에 주목했다. 웅장한 동시에 평온한 산, 정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 무성하면서도 질서 있는 숲의 모습은 작가의 미덕과 우리 생태계, 인간 사회를 차려로 떠올리게 한다.

10월 10일까지 | PKM 갤러리 | 02.734.9467

<유영국의 자연: 내면의 시선으로> 전시 전경 ©PKM Gallery

방과후 공연놀이터

2024. 9. 11. - 12. 11.

노원어린이극장 매주 수요일 14시 30분

노원어린이극장 '방과후 공연놀이터' 노원문화재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공연놀이터'를 진행한다. 공연을 관람하고 이와 연계한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댄스·미술·비트박스·오페라·서커스·발레 등 12주간 매주 다른 장르의 예술을 소개한다. 11월에는 리코더와 떠나는 바로크 음악 여행, 남만유랑극단의 공연, 오페라 <춘향전>, 더해프닝쇼 My Dream 등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노원어린이극장 | 02.2289.3451

2024 서울국제음악제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음악제가 '중부유럽여행'이라는 주제로 폴란드·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대표 작곡가의 걸작과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지닌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을 소개한다. 시마노프스키·킬라르·펜데레츠키의 곡으로 구성된 <바르샤바의 가을>(10월 18일), 쇤베르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비엔나의 여름>(19일), 스메타나와 드보르자크의 음악을 만나는 <프라하의 봄>(20일), 작곡가 이원정·강석희·김지향의 초연곡이 일부 포함된 <서울의 정경>(21일), 코다이·도흐나니·버르토크·리스트를 차려로 만나는 <부다페스트의 겨울>(23일) 등이다. 축제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며, 누리집(simf.kr)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15

©서울국제음악제

16



©Julia Meseley

안토니오 파파노 경&런던 심포니
영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가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와 내한한다. 2024/25 시즌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안토니오 파파노와 오케스트라의 첫 아시아 투어이며, 화려한 테크닉과 무대매너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유자 왕이 협연한다. 첫 곡으로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을 들려주며, 유자 왕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택했다. 작곡가가 10대 시절 첫 번째로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젊은 예술가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2부에서는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을 만난다. 롯데콘서트홀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음색이 들려줄 압도적인 음향이 기대된다.
10월 3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SEOUL HANOK WEEK 2024 EXHIBITION 서울 한옥워크 2024 전시

2024 서울한옥워크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제2회 서울한옥워크가 10월 6일까지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의 대표 한옥 축제로서 단순히 주거 공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 등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행사로 꾸러진다. 한옥 10곳에 현대미술 작가 10명의 작품이 설치돼 <공간의 공명>이라는 전시로 소개되며, 서울시 공공 한옥을 묶은 산책 코스를 안내한다. 북유럽 가구와 서울 한옥을 아우르는 기획 전시와 각종 마을 투어 프로그램, 전통차·전통주·꽃꽂이 체험 등 행사도 있다. 한옥 사랑으로 유명한 북촌 주민 마크 테토와 함께하는 '북촌 공경여행', 건축가 황두진의 '서촌산책, 서촌으로의 발걸음' 등 프로그램은 벌써 인기리에 마감을 앞뒀다는 사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han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아삼: 서울 3024-발굴된 미래>
예술과 시간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다니엘 아삼이 천 년 후 미래를 설정해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펼쳐놓는다. 조각·회화·건축·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으로 복제·재현된 사물을 통해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이질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250여 점을 공개하며, 서울 전시를 기념한 신작 회화와 드로잉, 대형 설치와 브랜드 협업 작업 등을 만날 수 있다.
10월 13일까지 | 롯데뮤지엄 | 1544.7744

Daniel Arsham, *FracturedIdols V*, 2023. Photo by Silvia Ros. Courtesy of the Artists and Perrain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진행해온 아시아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체성의 관점에서 1960년대 이후 주요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한다. 11개국 주요 여성 미술가의 작품을 통해 신체가 갖는 소용-접속의 가치에 주목하고, 아시아 여성 미술의 동시대적 의미를 새롭게 살피고자 한다. 국내외 기관 소장품과 새롭게 발굴한 구작, 국내의 신작 등 60여 팀의 작품 130여 점을 전시한다. 기부장제, 국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지리-정치학적 장소로서 아시아에서 '몸'에 기입된 문화 타자성의 경험을 드러내며 근대성에 의문을 제기한 작품에 주목해보자.
2025년 3월 3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필리프 드쿠플레 <샤잠>
상상력 가득한 복합 예술 공연의 선두 주자인 프랑스 연출가 겸 안무가 필리프 드쿠플레가 대표작 <샤잠>으로 8년 만에 내한한다. 춤·연극·서커스·마임·비디오·영화·그래픽 등을 뒤섞은 화려한 비주얼과 멀티미디어로 무용의 미래를 새롭게 보여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DCA 컴퍼니와 함께 작업 세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지휘봉을 흔들며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으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 서커스를 연상케 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 거울·액자·영상 등을 활용한 시각 효과, 실제와 가상이 혼재된 이미지 속에서 환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 1661.0017



©Laure Delanotte-Legrain/DCA

18

17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19



SEOUL HANOK WEEK 2024 EXHIBITION 서울 한옥워크 2024 전시

2024 서울한옥워크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제2회 서울한옥워크가 10월 6일까지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의 대표 한옥 축제로서 단순히 주거 공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 등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행사로 꾸러진다. 한옥 10곳에 현대미술 작가 10명의 작품이 설치돼 <공간의 공명>이라는 전시로 소개되며, 서울시 공공 한옥을 묶은 산책 코스를 안내한다. 북유럽 가구와 서울 한옥을 아우르는 기획 전시와 각종 마을 투어 프로그램, 전통차·전통주·꽃꽂이 체험 등 행사도 있다. 한옥 사랑으로 유명한 북촌 주민 마크 테토와 함께하는 '북촌 공경여행', 건축가 황두진의 '서촌산책, 서촌으로의 발걸음' 등 프로그램은 벌써 인기리에 마감을 앞뒀다는 사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han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아삼: 서울 3024-발굴된 미래>
예술과 시간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다니엘 아삼이 천 년 후 미래를 설정해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펼쳐놓는다. 조각·회화·건축·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으로 복제·재현된 사물을 통해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이질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250여 점을 공개하며, 서울 전시를 기념한 신작 회화와 드로잉, 대형 설치와 브랜드 협업 작업 등을 만날 수 있다.
10월 13일까지 | 롯데뮤지엄 | 1544.7744

Daniel Arsham, *FracturedIdols V*, 2023. Photo by Silvia Ros. Courtesy of the Artists and Perrain



SCENE

- 10 **인사이드**
공연장의 조명이 도시를 밝힐 때
- 14 **오페라**
고전과 파격의 치명적 조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 20 **인터뷰**
"클래식과 대중의 만남, 제가 주선합니다"
테너 존노
- 24 **발레**
남만으로 물드는 예술섬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 30 **인터뷰**
잠자는 노들섬의 공주
발레리나 홍향기



COVER STORY

한강노들섬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서울의 상징과 같은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시간. 오로라 공주와 동화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들의 춤을 만끽하며 이날만큼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예술이 주는 색다른 경험에 물들어보기를. 사진 제공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FOCUS

- 32 **예술가의 진심**
작가 조영주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 38 **예술인 아카이브**
정채민
- 40 **예술인 아카이브**
박정은
- 42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홍유나
우리가 예술로 하나 되기를
- 44 **인사이드**
각자의 기쁨기를 기쁨일 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시
- 46 **인사이드**
예술로 오늘의 안녕을 건네는
십장상: 안녕의 풍경
- 48 **트렌드**
거대한 비둘기가 도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COLUMN

- 52 **스크린 너머의 세상**
모든 채 지나버린 순간에 대하여
- 54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환상, 현실, 뒤섞임
- 56 **삶의 책장을 넘기며**
'Track 4'
- 58 **동시대적 고전 읽기**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하게 미끄러지기에
- 60 **일상 결의 공예**
럭셔리 브랜드의 공예 예찬
-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전 한강노들섬클래식

‘예술섬 노들’이 무대가 되고, 노랑고 빨간 노을이 조명으로 드리우면
한강노들섬클래식이 막을 올린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전’을 기치로
야외 클래식 공연 향유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올해, 한강노들섬클래식이 준비한 무대를 만나보자.



한강노들섬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월 12일과 13일 오후 6시

한강노들섬오페라 <카르멘>
10월 19일과 20일 오후 6시

*자세한 정보는 한강노들섬클래식
인스타그램 (@hangangarts.sfac) 참조

공연장의 조명이 도시를 밝힐 때

악명 높은 물가에도 사람들이 뉴욕을 떠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예술의 수도'답게 다양한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무료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로벌 도시의 성장에는 언제나 문화예술이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베토벤이 비틀스를 앞지른 밤”, “풀밭 위의 베토벤”...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찾은 1965년 '콘서트 인 더 파크 Concerts in the Parks' (이하 파크 콘서트) 관련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지금도 뉴욕의 사랑을 받는 뉴욕 필 파크 콘서트는 1965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의 5개 행정구인 맨해튼·브루클린·퀸스·브롱크스·스테튼 아일랜드에서 12회 야의 공연을 펼치며 시작됐다. 당시 윌리엄 스타인버그·오자와 세이지·알프레드 월렌스타인이 각각 지휘를 맡은 3개 프로그램이 4회씩 공연됐다.

뉴욕 필의 파크 콘서트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둔 맥주회사 슐리츠의 초청으로 뉴욕 필이 1964년 밀워키에서 공연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 당시 밀워키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지만, 경음악단에 가까웠다. 그래서 슐리츠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뉴욕 필을 초청해 밀워키 시민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열었다. 밀워키의 워싱턴 파크에서 열린 콘서트는 3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에 뉴욕필이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는 아이디어를 뉴욕시에 전달했다. 그러자 뉴욕시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5개 구의 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1965년 8월 10일 '뉴욕의 심장'으로 불리는 센트럴 파크 내 대형 잔디밭 '시프 메도 Sheep Meadow'에서 마침내 뉴욕 필의 파크 콘서트가 막을 열었다.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공연됐다. '합창'은 음악사에서 교향곡에 처음으로 성악이 동반된 작품이다. 이날 뉴욕 필과 함께 성악가 4명과 합창단이 등장했다.

놀라운 것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듣기 위해 시프 메도에 7만 명이 운집한 것이다. 며칠 뒤 뉴욕 세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기 밴드 비틀스 공연에 모인 5만 5천 명보다 많은 수치였다. 뉴욕의 링컨센터 같은 콘서트홀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 수 있는 관객이 센트럴 파크에 교향곡을 들으러 온 것이다. 물론 무료 공연이었지만, 뉴욕 필과 뉴욕시 모두 이렇게 많은 시민이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러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 시티파크 재단이 운영하는 '서머스테이지' ©Merissa Blitz/ City Parks Foundation

사람들이 몰려와 평소 보기 어려운 빈 필의 선율을 즐긴다.

최근엔 공연 영상화의 발전에 따라 고화질 및 고음질의 공연 실황을 무료로 상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오페라나 발레 등 라이브로 선보이기에 제작비나 무대 상황 등이 여의찮은 경우에 제격이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영국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 오스트리아 빈 슈타츠오페 등 기관과 단체가 공원이나 광장에서 공연 실황을 종종 상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이런 공연 실황 상영이 큰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와 예술단체가 시민을 위한 무료 야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꾸준히 공원·광장·박물관·한강공원 등에서 무료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또 세종문화회관은 전속 단체인 서울시예술단을 활용해 다장르의 무료 공연을 광화문광장에서 종종 열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한강노들섬클래식'은 서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야외 무료 공연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한 사례다.

한강노들섬클래식은 2022년 엔테믹을 맞이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발맞춰 열린 공간에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서울문화재단의 통합 축제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 가운데 가을 시즌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선선한 가을 저녁,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오페라와 발레를 관람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실내 공연장보다 음향은 못 할지 모르지만, 극장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다. 겨우 3회째지만 노들섬 잔디마당에 마련한 2천석 규모의 객석이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이제 브랜드 인지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 횟수의 증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첫날 공연을 시작으로 제1회 뉴욕 필 파크 콘서트가 대성공을 거두자 매년 열리는 것으로 정례화됐다. 1966년에도 5개 구에서 12회가 열렸는데, 첫날 센트럴 파크에서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로 연주된 베토벤 교향곡 3번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공연에는 7만 5천 명이 운집해 전년도 기록을 깼다. 이후에도 매년 관객 기록을 경신하더니 알도 체카토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곡만 연주한 1973년 센트럴 파크 공연 첫날에는 역대 최다인 11만 명이 운집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외 무료 공연이 증가하자 뉴욕 필의 파크 콘서트는 횡수를 줄여 지금은 5개 구에서 1회씩만 한다. 하지만 아직도 뉴욕 필이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는 공연이며, 1965년 이후 누적 관객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뉴욕 필의 파크 콘서트가 성공한 데는 뉴욕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야외 공연이 뉴욕 필 파크

콘서트가 처음은 아니다. 1853년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크고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이런 콘서트가 시민에게 휴식과 예술을 제공한다는 공원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봤다.

특히 연출가 조셉 펍 Joseph Papp이 설립한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 Shakespeare in the Park' 관련 논란은 뉴욕시가 공원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는 전환점이 됐다.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의 대부'로 불리는 펍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셰익스피어 공연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54년 센트럴 파크에서 연극을 처음 선보였다. 이후 여름마다 올리는 공연이 큰 인기를 끌자,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1959년 펍에게 잔디 관리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시민에게 요금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펍이 거부하자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뉴욕시가 태도를 바꿔 센트럴 파크 안에 아예 야외 원형극장을 짓는 해피엔딩으로

↑ 뉴욕 필의 파크콘서트 ©Chris Lee/New York Philharmonic

막을 내렸다. 완성된 1,800석 규모의 텔라코트 극장에서는 1962년부터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가 열린다. 펍이 이끌던 퍼블릭 시어터가 주관해 매년 2편이 공연되며, 그중 1편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데다 알 파치노·메릴 스트리프·모건 프리먼·덴절 워싱턴·앤 해서웨이·내털리 포트먼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한다. 매년 뉴욕시 사이에 무료 티켓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와 뉴욕 필의 파크 콘서트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브로드웨이 리그 Broadway League (브로드웨이 극장 및 제작자 협회) 등 뉴욕의 다양한 예술단체가 앞다퉈 무료 야외 공연에 나섰다. 뉴욕시와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도 있지만,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다. 링컨센터의 경우 1973년 극장 안팎에서 2~3개월간 수백 편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여름 축제 '아웃 오브 도어스 Out of Doors'를 시작했다. 유서 깊은 이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다가 2022년 '서머 포 더 시티 Summer for the City'라는 이름으로 재출발했다.

뉴욕에서는 5개 행정구의 공공공지 open space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 '시티 파크 재단 City Parks Foundation'이 1989년 설립됐다. 시티 파크 재단은 뉴욕시 공원관리국과 협력해 센트럴 파크처럼 초대형 공원부터 작은 녹지까지 750개 안팎이나 되는 뉴욕의 공공공지에서 광범위한 예술·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술단체들은 시티 파크 재단과 협력해 날짜와 프로그램 등을 조정한다. 그리고 뉴욕의 공공공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누리집에 통합해 게시돼 있어 시민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뉴욕시는 높은

생활비로 악명 높지만 '문화예술의 수도'답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문화 행사가 정말 많다. 사람들이 뉴욕을 떠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야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이 도시의 매력도와 에메니티 amenity (쾌적성)를 끌어올리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상의 색다른 즐거움, 시민을 위한 야외 공연

시민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둔 무료 야외 공연은 뉴욕 외에 수많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도시일수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런던 템스강 남부의 복합 문화 공간 사우스뱅크센터는 시민을 위해 일 년 내내 개방돼 있다. 특히 야외 공연장에서는 거의 매일 다양한 무료 공연이 이뤄진다. 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5년부터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흰부른 궁전에서 '여름밤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무료 콘서트에는 10만 명 가까운

고전과 파격의 치명적 조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스페인 배경의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은 태생부터 추문과 찬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오늘날, 고전과 파격을 아우르는 이 오페라는 그 자체로 명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 쿠비풍 분위기를 한껏 살린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카르멘〉(2018) ©Prudence Upton/Opera Australia

19세기 스페인의 이미지는 대체로 프랑스 소설가들에 의해 구축됐다. 오페라로 만들어진 것만 꼽아도 빅토르 위고의 ‘에르나니’와 ‘뤼 블라스’, 카시미르 들라비뉴의 ‘시드의 딸’,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카르멘’ 등이 있다. 프랑스에 스페인풍이 유행하면서 19세기 중반에는 파리 등 큰 도시의 카페에 플라멩코 춤과 스페인 기타가 자리 잡았고, 19세기 후반에는 투우사, 밝은 태양, 열정, 도도한 여인, 빠기는 이달고(하급 귀족), 도발적인 집시 등이 스페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베르디의 1853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2막 2장에는 코르티잔의 파티에 집시와 투우사가 눈요기 공연을 펼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당시 프랑스에 유행한 스페인 문화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프랑스인의 문화적 지향점은 호사의 극치, 즉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 궁정문화였다. 프렌치 고급 레스토랑은 국왕의 식탁에 오르던 고급 요리를 모방했고, 프랑스 엔틱 가구는 베르사유 스타일이어야 했다. 발레 무용수들이 온갖 예법을 다해 인사하는 것도 발레를 보호한 18세기 프랑스 왕실에 최상의 예의를 바치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스페인풍의 유행을 반영했지만, 그 바람에 고급문화 전통에서 완전히 비껴났다. 그래서 1875년

↓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초연 당시 포스터



3월 초연 당시부터 무자비한 혹평을 받았다. 3개월 후 겨우 37세 나이에 세상을 뜬 비제의 사인 또한 그 때문이란 소문이 돌 정도였다. 당시 한 평론가는 1막의 담배공장 여공들에 대해 “지옥에서 쏟아져 나온 여자들이며, 저주받아라!”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니 작곡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결국 프랑스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남았고, 그 인기 덕분에 프랑스 오페라도 이탈리아·독일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재조명된 ‘오페라 코미크’의 결장

19세기 프랑스 오페라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세기 궁정 오페라의 전통을 잇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랑 오페라 grand opéra는 귀족과 부자를 위한 공연물이었고, 오페라 코미크 opéra comique는 서민에게 개방된 대중 장르였다.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전성기를 맞은 것이 프랑스 특유의 세련된 서정성이 강조된 오페라 리리크 opéra lyrique요, 그와 정반대로 철저한 오락성으로 무장한 오페레타 operetta는 오늘날의 뮤지컬 비슷한 역할을 했다. <카르멘>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

<카르멘>은 처음부터 사치스러운 궁정문화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었다. 오페라 코미크 극장의 의뢰로 작곡됐기 때문이다. 이 극장은 이름 그대로 ‘오페라 코미크’를 공연했는데, 여기서 ‘코미크’란 ‘희극적’이란 의미와는 좀 다르다. 프랑스어 ‘코메디 comédie’는 희극이기에 앞서 연극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오페라 코미크는 ‘연극적 대사를 사용하는 오페라’란 뜻이다. 그랑 오페라와 달리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지 않아 고급스럽지는 못한 오페라로 간주됐고, 그 탓에 소극笑劇을 다룬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웃기는 내용이라고 못 박을 수 없다. <카르멘>은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임에도 오페라 코미크 형태로 초연됐다.

오페라 코미크인데도 혹독한 비평을 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서유럽 사람들이 천박한 하류층이라고 멸시한 집시여인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오페라로는 부적절하다고 여긴 사실이 가장 컸을 것이다. 게다가 극의 막판에 무대 위에서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것이 부정적 인상을 증폭시켰다. 초연 실패에 이어 비제마저 세상을



떠나자, 친구 에르네스트 기로는 대사 대신 레치타티보 recitativo를 입혀 오페라 리리크처럼 바꿨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면을 더하고자 한 것이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패배 후 변화를 갈구한 관객의 취향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대사를 사용한 오페라 코미크로도, 레치타티보가 붙은 오페라 리리크로도 공연된다.

천대받던 팜파탈의 재발견

<카르멘>을 본 러시아의 표트르 차이콥스키는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흥분 가득한 편지를 썼다. 작곡가 만년의 산물인 오페라 <스페이드 퀸> 개시부에

<카르멘>과 흡사하게 어린이들의 병정놀이 행진을 집어넣었다. 독일의 요하네스 브람스도 이 오페라에 매혹됐고, 철학자 니체는 한때 심취했던 바그너에 등을 돌리고 라틴적인 <카르멘> 예찬론자가 된다. 이런 천재들이 진가를 알아본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카르멘이 뿔어낸 팜파탈 femme fatale의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녀’로 번역해야 마땅한 팜파탈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금기를 통렬하게 깬다는 점이다. 악녀를 매력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일종의 터부였지만, <카르멘>에서는 팜파탈을 벌 받아야 할 여자가

아닌 희소한 매력이 있는 여자로 보았다. 절세 미녀가 아니더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며, 남자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지배하려는 당당한 여인으로 말이다. 이후 프랑스 오페라로 생상스의 <삼손과 델릴라>, 마스네의 <미농>, <타이스>, 독일 오페라로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베르크의 <롤루>가 나왔으니 <카르멘>은 근대적 팜파탈 오페라의 선구라 하겠다.

둘째, 팜파탈의 매력을 발견한 것은 비제 이전부터 프랑스 특유의 트렌드로 존재하고 있었다. 18세기 전반기에 아베 프레보의 소설

↑ 카리스토 비에이토의 연출로 2016/17 시즌 초연해 파리 오페라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카르멘> ©Vincent Pontet/OnP

『미농 레스코』, 후반기에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가 출판됐고, 19세기에 들어 오페라의 원작인 메리메의 『카르멘』이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문인 조르주 상드, 배우 셀레스트 베나르(일명 모가도르) 등 여걸이 자유연애를 즐긴 파리의 유명 인사가 되는데, 비제는 이런 팜파탈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보수 인사들의 소란은 있었지만, 프랑스인을 사로잡은 전통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성공은 시간문제였다.

셋째, 팜파탈에게 비극성을 불어 넣었다. 팜파탈은 대개 남자를 파멸시킨 뒤 자신은 사라지곤 하지만, 카르멘은 목숨을 걸고 돈 호세의 위협에 맞서다가 쓰러진다. 관객은 카르멘의 당당한 죽음에 연민도 느꼈다. 비제는 카르멘과 에스카미요가 맺어지는 해피엔딩도 고려했지만, 카르멘 역의 초연 가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두었다는 일화가 있다. 해피엔딩이었다면 이만한 감동을 안겨주지 못했을 것이다.

소설 vs. 오페라, 같고도 다른

〈카르멘〉의 주요 등장인물은 오페라 성부와 캐릭터의 교과서적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소프라노는 연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순결한

여인이며, 테너는 소프라노의 연인이지만 성급하고 덜 성숙한 인격체다. 반면 바리톤은 테너보다 사회·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계락을 꾸밀 줄 안다. 메조소프라노는 강한 여인의 상징이며, 프랑스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으면 팜파탈이 된다. 그래서 카르멘(메조소프라노)의 노래는 대개 남자를 유혹하거나 유희적인 삶을 예찬하는 반면, 돈 호세(테너)의 노래는 순수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미카엘라(소프라노)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에스카미요(바리톤)는 늘 자신만만하고 남성적 매력을 풍긴다.

오페라보다 30년 앞선 메리메의 원작 소설은 4부 구성인데, 오페라는 그중 살인죄로 투옥돼

교수형을 기다리는 돈 호세의 회상인 제3부에 집중했다. 원작에는 카르멘에게 건달 남편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돈 호세가 죽인다는 것이다. 오페라 속 소심한 캐릭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면 카르멘의 성격은 오페라보다 덜 분방하게 그려졌다. 비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여배우 셀레스트 베나르를 보고 카르멘의 팜파탈 이미지를 보강했다고 한다. 미카엘라는 원작에 나오지 않는다. 카르멘이 너무 강한 캐릭터인 것을 우려한 친구들이 전통적 여성상도 넣을 것을 조언해 새 캐릭터로 추가된 것이다. 카르멘의 새 연인 투우사도 원작에서는 루카스란 이름으로 잠시 언급만 될 뿐인데, 오페라에서는 에스카미요라는 준주역급으로 격상됐다.

음악적 묘미, 재창조의 원천이 되다

〈카르멘〉은 음악적 다양성으로 유명하다. 쿠바의 아바나에서 들어온 담뱃잎을 가공하는 세비아의 공장 앞 광장에서 카르멘은 쿠바풍의 사랑 노래인 일명 ‘아바네라(하바네라)’로 남자들을 매혹한다. 그리들은 명백히 아르헨티나 탱고로까지 이어지는 중남미 스타일의 춤을 담고 있다. 체포된 자신을 풀어달라며 돈 호세를 유혹하는 장면에서는 ‘세기디야’ 리듬으로 상대방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세기디야란 스페인의 황금시대이자

→ 201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카르멘〉 무대에 선 막달레나 코제나와 요나스 카우프만 ©Luigi Caputo
↓ 시드니 코커투 섬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야외 오페라 〈카르멘〉 ©Opera Australia



민속춤의 전성기였던 16세기에 확립된 3박자 계열의 춤과 시를 말한다. 그런가 하면 2막 술집 장면에서는 전형적인 ‘집시의 노래’, 즉 플라멩코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다.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의 집시 춤에서 유래한 것으로 느린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의 세 계열로 분류되는데, 오페라에 사용된 것은 빠른 춤이다.

카르멘의 중요한 노래가 춤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 오페라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오페라는 탄생 당시 그리스비극의 재현을 목표로 했기에 에로스적인 요소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춤은 본능적으로 에로틱하다. 이렇게 춤 리듬을 통해, 또 비제가 의도적으로 구사한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카르멘의 고희적 캐릭터가 창조된 것은 물론 끈적거리는 성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반면

미카엘라의 노래는 고아한 프랑스 분위기에 물들어 있다. 1막의 이중창과 3막의 산속 장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고결하고 순진한 면모를 드러내 카르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카르멘〉의 그 유명한 1막 전주곡과 막 사이 세 곡의 간주곡(또는 각 막의 전주곡)은 가장 인상적인 관현악 소품들이다.

끝으로 〈카르멘〉은 그 자체가 명작이지만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으로도 작용한 그야말로 원형의 예술이 됐다는 가치가 있다. 사라사테와 왁스만 등이 카르멘 선율을 이용해 바이올린 독주를 사용한 기악곡을 작곡했고, 롤랑 피티와 마츠 에크·안토니오 가테스를 위시한 수많은 안무가가 춤으로 만들었으며, 이 이야기와 음악을 사용한 영화가 적어도 10여 편은 나왔으니 말이다.



“클래식과 대중의 만남, 제가 주선합니다” 테너 존노

TV 프로그램으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지만, 그의 행보는 좀 달랐다. 기다리기보다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마침내 이루게 된 국내 전막 오페라 데뷔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팬텀싱어’ 테너 존노가 국내 전막 오페라에 데뷔한다. 10월 19일과 20일 열리는 한강노들섬오페라 <카르멘>에서 돈 호세 역할을 맡았다. 이 소식이 유독 반가운 이유가 있다. 사실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는 양면성이 있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성악가들을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클래식 음악계가 좋은 인재를 대중음악계에 뺏긴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스타로 뜬 뒤 트로트·뮤지컬계를 주 무대로 선택한 성악가가 꽤 있다.

2020년 시즌 3의 준우승팀 ‘라비던스’로 큰 인기를 얻은 존노의 행보는 좀 달랐다. 데뷔 초부터 클래식 음악과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면서 팬텀싱어 콘서트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회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성악곡을 불렀다. 오페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살롱 오페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지만, 전막 오페라 프로덕션의 주역을 맡은 건 처음이니 기대가 높을 수밖에. 첫 도전에 아의 오페라가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마침내 국내 데뷔를 하게 된 그는 마냥 설레 보였다.

빙 돌아서 왔네요. 제가 예일대에서도 오페라과를 다녔고, 졸업 후에 오페라단 입단을 준비하다가 <팬텀싱어>에 나가게 됐어요. 오페라에 대한 갈망은 늘 있었지만 국내 오페라 데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더군요.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두 차례 살롱 오페라를 직접 만들면서 오페라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어필했어요.

모차르트 테너인데, 돈 호세 역할이 잘 맞나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했어요. 저는 벨 칸토와 모차르트·바로크·현대음악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만일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국내 오페라 무대에 정식 데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어요. 마침 활동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성숙하게 변하던 참이기도 해서 도전했습니다.

첫 클래식 앨범에 돈 호세의 ‘꽃노래’가 수록돼 있던데요. 원래 좋아하는 곡이에요. 미국에서 전막은 아니지만 돈 호세 역을 여러 번 했거든요. 돈 호세는 처음에는 서정적이고 리릭한 소리를

촬영 협조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감각을 깨우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탐색해볼 수 있는 공간. 복층 구조의 라운지로 꾸러진 센트럴파크타워 1층과 강의실 등이 자리한 공공시설동 5·6층으로 구성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용산구 서빙고로 17 | 02.3785.3199

내다가 뒤에는 완전히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야 해요. 두 가지 소리를 전부 내야 진정한 돈 호세라고 하죠. 저는 원래 리릭 테너지만 성대결절 이후에 목을 아끼면서 레제로에 가까운 리릭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돈 호세를 많이 했어요. '꽃노래'도 첫 번째 돈 호세의 아리아죠. 뒷부분에선 성량이 오케스트라를 뚫어야 하는데, 제 소리가 좀 꺾이릴 났던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다시 리릭 쪽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야외 오페라는 해 본 적 없죠.

야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오페라를 한 적은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에스터 코트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Murasaki's Moon)>2019이라는 작품에 출연했거든요. 일본의 고문학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전시와 함께 오페라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승려 역할이라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삭발까지 하고 나간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언젠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콘서트를 준비할 때와는 긴장감이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 전막 오페라는 처음이라는 긴장감은 좀 있는데, 혼자 콘서트할 때보다는 덜 하네요. 큰 배에 탄 사람일 뿐, 전장은 제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평가받을지 걱정은 되지만, 도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도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만약 이번에 안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페라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진짜 돈 호세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카르멘>은 연기에 신경 쓰고 안쓰고의 차이가 큰 작품인데, 관객이 작품에 빠져들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10킬로그램 정도 살을 뺐죠. 돈 호세가 군인인데, 너무 '귀염귀함' 하면 안 되잖아요.(웃음) 갈수록 우울해져야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공연 때까지 3~4킬로그램만 더 빼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사실 <카르멘>은 바리톤이 맡는 에스카미요가 더 매력적인데요. 호세가 순정남이긴 하지만 악역이라 생각해요. 1막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이거든요. 옥했다가 가라앉은 연기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제 무대에선 그런 걸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병적이고, 아픈 사람으로 해석하려 해요. 군인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상관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고, 약혼자 미카엘라도 어머니가 정해주신 거잖아요. 평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다가 틀에서 벗어났을 때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고, 나중엔 '자유분방의 끝판왕'인 카르멘에 의해서 선을 넘고 미는 거죠. 이걸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비극이라고 한다면 변명인 것 같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를 다시 만난 건 거의 3년 만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첫 클래식 음악 앨범 발매와 첫 독창회를 앞두고 있던 옛된 청년이 그사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열 만큼 성장했고, 9개월 딸을 둔 아빠가 됐다.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 터다.

3년 전의 존노와 지금의 존노를 비교해볼까요.

무대 경험이 많아진 만큼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면, 이제는 음악에 온전히 빠져 있을 때 저도 관객도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이 덕분에 음악을 대하는 시야가 넓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음 하나를 연주할 때도 전에는 그 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왜 그 음이 필요한가, 그 음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죠.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알아야 달랠 수 있는 것과 똑 같아요.(웃음)

클래식 음악과 대중의 가교 역할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 소신 그대로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다보니 제 팬 중에 정말로 클래식 음악에 빠진 분들도 있고,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이번 오페라도 그런 맥락이죠. 전에 제가 만든 오페라는 전막 프로덕션은 아니었으니 이번엔야말로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하고요. 사실 지난달 서울시합창단 <한여름의 메시아> 무대에 솔리스트로 섰는데, 섭외된 게 아니라 공개 오디션에 회사 몰래 지원해서 배역을 따낸 거거든요. 저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클래식 음악과 대중을 이곳에 데려와 열심히 다리를 놓는 중입니다.(웃음)



카네기홀 데뷔도 특별했겠죠. 뉴욕에 있을 때 카네기홀의 가곡 프로그램에 학생으로 참여하면서 무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니 감사했어요. 팬분들이 소문도 많이 내줘서 매진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뉴욕에서 일정이 많았거든요. 전날에는 소리가 전혀 안 나오길래 약을 잔뜩 먹고 잠만 잤죠. 다행히 당일엔 좀 괜찮아져서 무사히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곡이 남았을 때 목이 아예 잠겨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슬픈 곡이 나오지 못받치는 감정만으로 울면서 불렀는데, 오히려 팬들은 그걸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맨 마지막 곡이라 다행이면서도, 아쉬웠어요. 뭐든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란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팬텀싱어'들은 뮤지컬 무대에도 많이 진출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뮤지컬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먼저 하고 싶어요. 차이라면 오페라는 캐릭터가 먼저고, 뮤지컬은 배우가 먼저인 것 같거든요. 오페라는 스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정답을 듣기 위해 극장에 오죠. 그래서 관객이 유입되는 데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어요. 오페라 작품은 캐릭터를 다 알고 봐야 재밌는데, 모든 관객이 그렇지는 않으니깐요. 반면 뮤지컬 팬들은 배우를 따라와서 작품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죠. 다행히 제 경우는 팬들이 <카르멘>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저의 돈 호세는 어떨지 궁금해 하면서 오시니까 더 감사하죠.

요즘 한국 오페라 시장에 대작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장르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교수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정말 재능 있고 스타성 있는 사람들도 좀 배우다가 전공을 바꾼다는 거였어요. 오페라계가 침체하니 노래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 좋은 가수들이 안 나오고 오페라는 점점 더 침체하는 악순환인 건데, 제 생각에 한국에선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기회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또래만 해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엄청 많고, 그들이 뭉친다면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콘텐츠로 승부를 보는 시대잖아요.

낭만으로 물드는 예술섬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환상적인 움직임이 어둠을
수놓는 노들섬. 분홍빛 토슈즈와
함께하는 가을밤의 낭만이
시작된다.



→ 오로라 공주가 자신의 16번째 생일 파티에서 네 명의 왕자와
춤 '로즈 아다지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문화재단은 한강 노들섬을 연중 공연이 열리는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야외 클래식 공연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도 프로그램은 물론, 관람 환경과 예약 시스템 등을 개선하며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10월 12일과 13일 공연되는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서울문화재단과 민간 발레단 연합이 공동 제작하는 공연이다. 최근 한국의

발레 수준이 높아진 만큼 민간 발레단의 활동도 활발한데, 특히 지난 10여 년간 발레STP협동조합을 결성해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저변 확대를 도모해온 이들은 합동 공연뿐 아니라 발레 축제를 개최하고 무용수를 발굴하며 관객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발레STP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세 단체가 협력해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유니버설발레단·와이즈발레단·서울발레시어터의 무용수 70여 명이 한 무대에 오르고, 주역인 오로라 공주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홍향기와 솔리스트 이유림, 데지레 왕자는 수석무용수 이동탁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각각 맡았다.

↓ 악역 카라보스는 여성이 아닌 남성 무용수가 연기해 선했던 여성 요정과 대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발레단 역량을 총망라하는 대작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마리우스 피티파의 화려한 안무로 발레 테크닉의 절정을 보여주며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로 불리는 작품이다. 1890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 발레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익숙한 줄거리에 19세기 플로레스탄 왕궁을 웅장하게 재현한 무대와 의상, 형식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군무, 화려함과 정교함을 담은 주역 무용수의 그랑 파드되(2인무), 동화에 등장하는 친숙한 캐릭터들의 디베르티스망(줄거리와 관계없이 볼거리로 삽입된 춤) 등 모든 구성 요소가 고전주의 발레의 정수를 이룬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차이콥스키 발레 작품 중 유일하게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며 크게 수정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보다 고전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1984년 중앙일보사 주최 비엔나국립발레단 Wiener Staatsballett 초청공연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는데, 루돌프 누레예프 Rudolf Nureyev가 당시 46세 노장으로 데지레 왕자 역을 맡아 공연하면서 제대로 된 전막이 소개됐다. 국내 발레단으로는 1994년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10주년 기념작으로 마린스키 발레의 원형을 따른 작품을 공연한 후 올해까지 서너 차례 재공연했고, 국립발레단도 2004년 공연 이후 12년 만인 2016년에야 공연하는 등 <지젤>이나 <백조의 호수>에 비해 자주 보기 힘든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3시간 가까이 되는 작품 길이가 클래식 발레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편이며, 춤의 난도나 무용수 규모, 무대 제작 등에서 웬만한 발레단 역량으로는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흔히 볼 수 없는 발레 작품이기에 반갑기도 하지만 야외무대에서 전막을 공연한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은 공연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야외무대를 고려해 원형의 안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축소해 중간휴식 없이 1시간 35분간 공연하는데, 3막 4장의 구성은 유지하되 줄거리 밖의 장식적 춤 두 부분(1막 왈츠 군무와 2막 꿈속에 등장하는 오로라 솔로)을 삭제해 극 전개에 속도감을 높였다. 다소 보수적인 러시아 발레단의 경우 원작의 속도 그대로 연주하는 것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일부 발레단은 동시대 관객의 성향을 고려해 빠른 연주로 공연 시간을 단축하는 추세다. 야외에서 쉬는 시간 없이 관람하는 환경은 물론이고 쇼츠와 릴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속도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축약은 적절한 각색이라 할 수 있겠다.

일상을 벗어나 화려한 동화의 세계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롤로그와 3막으로 구성되는데, 독특한 것은 프롤로그가 거의 30분에 달한다는 점이다. 내용상으로도 플로레스탄 왕국에서 오로라 공주의 탄생을



← 동화에서 차용한 '빨간두건 소녀와 늑대'의 춤



↑ 카라보스의 저주가 깃든 바늘에 찔려 쓰러진 오로라 공주
← 앙증맞은 안무가 돋보이는 고양이 춤

기념하는 축하연이 열리는 날, 악의 요정 카라보스가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공주가 16세가 되면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다는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프롤로그에선 여섯 요정의 각기 다른 의상과 아름다운 춤, 악역이지만 매력적인 카라보스의 연기가 볼거리다. 카라보스 역은 거의 모든 버전에서 남성 무용수가 맡고 있는데, 여성 캐릭터지만 무대를 장악하는 큰 마음을 표현하며 선한 요정들과 대비시키기 위해 남성 무용수가 연기하는 것이다.

1막에선 오로라 공주가 16번째 생일 파티에서 네 명의 왕자와 추는 '로즈 아다지오'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흔들림 없이 왕자들과 교대로 손을 맞잡는 오로라 공주의 고난도 동작이 관전 요소라 할 수 있다. 1막은 노파로 변장한 카라보스에게 장미 꽃다발을 받은 오로라 공주가 꽃다발에 숨겨진 물레 바늘에 찔려 쓰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2막은 데지레 왕자가 꿈속에서 라일락 요정의 도움으로 오로라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사랑길에 플로레스탄 왕국을 발견해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오로라 공주를 깨우는 내용이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눈에 띄는 각색은 라일락 요정의 존재감인데, 악역 카라보스의 역할만큼 그에 맞서는 라일락 요정의 비중을 크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짧은 키스 장면을 제외하면 2막 대부분이 꿈속 장면으로 줄거리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이 장면이 없다면 공주에 대한 키스와 청혼이 설명될 수 없기에 직접 각색에 참여한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 의도가 담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3막 결혼식이다. '파랑새와 플로리나 공주', '장화 신은 고양이와 앙증맞은 흰 고양이', '빨간 두건 소녀와 늑대'가 보여주는 동화 속 캐릭터도 큰 볼거리지만,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그랑 파드되는 따로 떼어 공연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안무를 보여준다. 기교 면에서는 파랑새의 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데지레 왕자와 오로라 공주의 솔로 바리아시옹에 이은 경쾌한 파드되 코다에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도 좋을 것이다. 모든 축하객이 한데 어울려 미주르카를 추고 라일락 요정이 이들을 축복하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동화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 분홍빛 투슈즈와 함께하는 가을밤의 낭만을 위해 10월 어느 주말, 노들섬에 들러보면 어떨까.

잠자는 노들섬의 공주 발레리나 흥향기

지난해에는 매력 넘치는 흑조 오딜로, 올해는 사랑스러운 공주 오로라로 한강노들섬발레 무대에 오를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흥향기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첫 번째 한강노들섬발레 공연에서 <백조의 호수>의 오딜로 출연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한강노들섬클래식이 열리는 야외무대만의 매력 포인트를 이야기해주신다면. 무엇보다 '야외무대'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그 무대에서 춤춰야 하는 무용수로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방이 트인 공간에서 춤춘다는 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올해 공연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890년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초연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는 클래식 발레 대표작이죠. 발레리나 흥향기가 생각하는 주인공 '오로라'는 어떤 역할인가요. 발레의 기본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작품이기에, 무대에서는 무용수에게는 초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여섯 살 오로라는 '공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쁜', '아름다운' 같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캐릭터예요. 상큼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공주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강노들섬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는 3막 구성의 전막 발레를 인터미션 없이 약 1시간 35분 길이로 줄여서 공연합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작품인 만큼, 관람 팁을 전해주시다면. 특히 여성 무용수에게 체력적으로 힘든 작품이라 요즘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러닝타임이 줄어든 이번 공연은 장면 구성에 있어 춤이 삭제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인터미션 없이 쭉 이어지는 전막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눈여겨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시간 없이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바뀌는 무대 세트와 의상을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이 순식간에 공연이 끝나 있을 테니까요.(웃음)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생일 파티와 함께 오로라 공주가 처음 등장하는 신scene이예요. 웅장한 무대를 배경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음악에 맞춰 등장하는 공주의 표정과 움직임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무대에서 데지레 왕자로 호흡을 맞추는 발레리노 이동탁을 소개해주세요. '항기탁' 커플이라는 애칭처럼 10년 가까이 멋진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두 분이죠. 꽤 오래 함께 춤을 추기도 했지만, 처음 호흡을 맞추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예요. 한결같이 발레리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주죠. 또 어느 작품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매력 넘치는 무용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지난여름 지방을 순회하며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관객과 만난 소감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발레를 비롯한 클래식 공연을 즐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을 각 지역에 거주하는 관객께 가까운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서울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발레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예전에 비해 공연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연의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더 많은 공연이, 더 많은 공연장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특정 시즌이 아니라라도 발레 공연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흥향기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로, 2010년 발레단에 입단해 코르도발레·드미솔리스트·솔리스트를 차근차근 거쳐 2018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수여하는 '2021년을 빛낸 무용수상', 한국발레협회 '프리마발레리나상'을 받았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돈키호테>, 인상 깊게 춤춘 작품으로 유병현이 안무한 창작발레 <춘향>을 꼽는다.

ASSOCIATE

예술가의 진심
작가 조영주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예술인 아카이브
정채민
박정은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홍유나
인사이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심장생: 안녕의 풍경>
트렌드
거대한 비둘기가 도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작가
조영주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조영주는 설치·사진·영상·퍼포먼스·무용 등 한 가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다. 파리와 베를린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한 작가는 2012년부터는 서울로 돌아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 2022년에는 재단이 진행하는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에 참여했으며, 지난 4월까지는 제20회 송은미술대상 수상을 기념한 개인전 〈카덴짜〉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올 하반기에는 부산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미술관 밖 프로젝트#1-6 열 개의 눈》(10월 20일까지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과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10월 27일까지) 등 전국 곳곳에서 조영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적 관심사와 경험에서 찾은 작업의 실마리

작가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 사이 관계를 파고들고,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탐구한다. 나아가 여성 혹은 여성 예술가의 실질적 고민을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풀어낸다. 주제의 다양성만큼이나 다루는 매체에도 제한이 없다. “작업을 먼저 구상한 다음 표현에 적합한 매체를 찾다보니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요. 또 학창 시절부터 여러 매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공연예술을 좋아했죠. 연극이나 발레 등도 자주 접하고, 마당극과 사물놀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어요. 미대생 시절에는 오히려 전공보다 연극반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정도로요.”

사실 조영주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만 해도 지금까지처럼 퍼포먼스나

비디오아트가 학생에게 익숙한 매체는 아니었다. “단지 개인적 관심사였던 연극이나 공연을 작품 재료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파리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온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연극반 활동이 작품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때부터 퍼포먼스나 비디오를 매체로 삼은 거죠. 그러다 파리 유학길에 올랐는데, 프랑스에서는 현대무용이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고 시각예술 페스티벌에 댄스 비디오가 항상 등장하더군요. 공연예술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학교에서 무용·비디오·사운드·영화 등 다양한 강의를 접하면서 체득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작품에 등장했어요.”

개인적 경험이 매체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경험한 은은한 남녀 차별,

프랑스·독일 등 고국과 타지를 오가며 겪은 사회 속 차별과 고정관념 등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됐다. 작가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에서 우려나온 질문을 작품으로 승화한 것이다. 결국 모든 작품의 출발점은 항상 조영주 자신이었다. 그동안 이방인, 다문화, 차별, 인종, 계급, 환경, 난민, 여성,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뤘지만, 작품을 단순히 특정 주제만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없는 이유다. “스스로에게 관심이 많아요. 제 이야기지만 곧 어떤 사회와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을 의미하죠. 제가 태어나 죽는 시점까지, 그 안에서 깊게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간접적 지식보다는 제가 직접 영향을 받은 지점이 곧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런 모든 관심이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다리 건너 존재하는 얘기는

잘 못해요. 사실 개인적 경험이 모든 작품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 이상함이나 의아함을 느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평범하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미묘한 지점을 경험하고, 파고들어 탐구하고, 관람객과 공유할 방법을 고민해요. 그 지점을 제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찾는 것 또한 제가 매체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렇게 개인적 경험에서 근거한 작업이지만 대부분 사회 부조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작품으로서 무언가를 발언하고 표현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행복하고 만족할 때 발언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살아가면서 이상함과 부조리함을 느낄 때면 타인의 생각이 궁금해져요. 제 작품이 화두를 던지고 발언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뿐인지, 개인 혹은 사회의 문제인지, 성별이나 세대가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궁금증이 솟아나거든요. 제 작품을 수단이자 매개체로 삼아 이런 질문의 동기 부여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조영주는 그런 부조리함을 작품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는 덕분에 우리는 사회의 불합리한 지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제 작업으로 부조리함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예술가는 절대 액티비스트가 될 수 없고, 예술이 직접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놓으려는 노력의 일종이에요.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 작가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런 조영주의 작품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성 서사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겪는 불합리함을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2010년대 중반에 제작한 〈꽃가라 로맨스〉²⁰¹⁴, 〈그랜드 큐티〉²⁰¹⁵, 〈디바들의 외출〉²⁰¹⁵ 같은 작품에서 중년 여성의 삶을 주목했고,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여성 예술가가 겪는 고민, 육아 경험과 돌봄 노동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언폴드엑스’에서 선보인 〈이산 신체 재회〉²⁰²²와 송은 개인전에서 소개한 연작 격의 작품 〈이산 신체 해후〉²⁰²⁴에서는 현대에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여성 신체 이미지를 꺼내 들었다. 최신작

〈솔리스트들〉²⁰²⁴에서는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행복메리합창단의 목소리를 담아 여성으로서 느낀 사회적 불평등을 향한 퍼포먼스로 구현하면서 개인적 이슈뿐 아니라 이주여성 문제로도 관심을 확장해나갔다.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현시점에서 이렇게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여성 작가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닌다.

“저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만일 내가 백인 남자였다면 무슨 질문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계속 품고 있어요. 저는 아시아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제게 주어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작품이 여성 이슈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곤 하지만, 그걸 단순히 여성의 이야기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많은 여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는 단지 제가 처한 문화적 배경, 국적, 상황 등에서 경험한 제 얘기를 그대로 할 뿐이에요.”

특히 출산과 육아를 겪은 후 작가의 역할과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을 아우르는 현실적 고민이 배가됐다.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1970~80년대부터 급진적 작품 활동을 해온 오를랑^{ORLAN}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마침 2016년 성극미술관 개인전으로 방한했을 때, 학교 출신들이 다 같이 모였죠. 약 10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뵈 자리였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거거든요. 저를 보더니 대뜸 ‘너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가졌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이미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임신 전에도 한국 여성의 삶을 다뤘지만, 결국 제가 이 사회 현실에서 임신한 여자 작가가 된 거죠. 신체적 제약 때문에 커뮤니티아트나 야외 프로젝트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학교나 미술관에 최대한 임신 사실을 숨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자 선배 작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서운했죠. 하지만 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출산 전에 했던 여성 이야기와 출산을 겪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모두 제 이야기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더 처절했어요.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야기가 더욱 확장된 거죠.”

조영주는 얼마 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특별기념전 〈오를랑 하이브리드: Artistic Intelligence〉의 토크 패널로 오를랑과 8년 만에 재회했다. “그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유럽 여성은 아시아 여성에 비해



ASSOCIATED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오를랑은 ‘절대로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와 좋은 엄마가 동시에 될 수 없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생물학·사회적으로 이미 에러^{error}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인간 한 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아느냐’ 같은 말을 하더군요. 물론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오를랑의 답변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성 작가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버틴 삶의 반증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생각하면 좋을지 건설적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 〈이산 신체 재회〉, 2022, 이원생중계 라이브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0분
안무&공동연출: 임은정
퍼포머: 김기영, 명지혜, 박소희, 박지현, 송영선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live satellite performance, two-channel video, color, sound, 20min
Choreography & Co-direction : Eunjoung Im
Performer : Giyoung Kim, Ji Hye Myeong, Sohee Park, Ji Hyeon Park, Young-sun Song

↓ 〈솔리스트들〉, 2024, 라이브 퍼포먼스,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5분
합창단: 행복메아리
합창단원: 김발렌티나, 마니바자르 암가마, 손순남, 아베 미츠코, 어트건바야르 아즈자르갈, 안은경, 아나셴코 옥사나, 왕금봉, 왕진홍, 이선이, 전경진, 구도 사치코, 하세가와 아카미
Soloists, 2024, live performance,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5min
Choir : Echo of Happiness
Choir Member : Valentina Kim, Amgaamaa Manibazar, Soon Nam Son, Mitsuko Abe, Azjargal Otgonbayar, Eungyeong An, Oksana Anishchenko, Geumbong Wang, Jinhong Wang, Seon Yi Lee, Kyungjin Jun, Sachiko Kudo, Akimi Hasegawa



20여 년에 걸쳐 치열하게 담아낸 진심

오를랑만큼이나 조영주 또한 어쩌면 유럽보다 여성 작가에게 더 열악한 환경인 이곳 한국에서 20여 년에 걸쳐 여성 작가로서 더욱 치열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단 한 번도 작업에 허투루 임한 적이 없다. “작품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재와 주제는 물론이고, 전시 형식으로 갈지 매체적으로 구현할지도 고민해요. 전시 장소에 따라서도 작품을 보여주는 포맷이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준비해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작품 구상을 시작하면, 리서치 과정에서도 전력을 다한다. 관련 서적이나 논문도 찾아보지만, 대부분 직접 발로 뛰며 실제 인물을 만난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를 직접 찾아가고 주로 직접 목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지난해 런던 델피나재단Delfina Foundation 레지던시에 입주했을 때도 유럽의 많은 단체에 방문했어요. 파독 간호사 중심의 연극과 무용 동아리, 아시아의 젊은 젠지Gen-Z 커뮤니티,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여성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등을 내년에도 찾아갈 계획이에요.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신체와 제스처 등을 옆에서 바라보지만 해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개인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콜렉티브 활동,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등을 겪었다. 워낙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많은 협업자를 초대했다. 드라마터그·안무가·카메라감독은 물론이고, 작품에 따라서는 요가강사·정신분석가·재활치료사와도 함께했다. 그만큼 크레디트에도 많이 신경을 쓴다고. “일본 작가

히토 슈타이알Hito Steyerl은 작품 마지막 크레디트에 자신의 역할로 케이터링·청소까지 다 쓰더군요. 저도 그래요. 기금 조달 등 많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보태서 완성한 작업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제대로 관객에게 드러내고, 모두 함께 인정받으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까 고민해요. 많은 시행착오와 다툼을 겪었고 부당함에 맞선 적도 있어요. 제 작품에는 조영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늘 제 생각은 그분들의 노력에 모자라요.”

개인 활동만큼이나 10년에 걸쳐 매진한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 콜렉티브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했다. “콜렉티브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 작업에 더욱 몰두할

생각이에요. 제 프로젝트 안에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작점으로, 내년 상반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선보일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일년 동안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에 있는 얀 판 에이크 아카데미Jan van Eyck Academie 레지던시에 입주할 계획이에요. 그동안 숨 쉴 틈 없이 달려왔거든요. 아무래도 레지던시에서는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제 작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지점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환기가 필요해요. 유럽 현지에서 한국과 아시아 여성의 이주에 관해 리서치할 생각이예요. 이주여성에게는 해외 입양, 노동,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양하게 파고들어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심 없이 작품에 매달리면서도 작품의 공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조영주에게 남은 한 해를 비롯한 앞으로의 시간이 의미 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채민

무용/현대무용

b.1989

@salad_miin

서울무용센터 2024년 하반기

입주예술가

“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몸과 춤의 경로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면 심리와 세상을 보는 필터의 연관성, 현상학, 뇌과학에 흥미를 갖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미술을 전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에 입학했다가 춤의 생동감에 마음을 뺏겨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영국 런던 컨템퍼러리 댄스 스쿨^{LCDS}에서 유학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졸업한 후 무용수와 안무가로 극장과 거리를 누비고, 현대무용, 디바이징^{Devising Theatre} 작업, 시각예술 퍼포먼스 등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첫 안무 작업은 대학원 여름방학 때 이스라엘에 열린 워크숍에 다녀온 뒤에 그 흥분을 이어 듀엣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첫 창작이지만,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창작의 시작이라는 은사님의 가르침에 첫발을 땔 용기를 냈습니다. 무용수로서는 2015년 무용단에 들어가 단원과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해왔습니다. ”

↓ 대학로극장 퀴드 프리 오픈 시즌 제작공연 (2022 휘이잉)



“ 서울문화재단과 첫 인연은 2021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리예술 NEXT'에 선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쉽게 과정 중 다른 공연 일정으로 중도 이탈하게 됐는데, 이후에 '거리예술 NEXT'에 함께한 동기가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고맙게도 함께하자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옴니버스형 거리공연 <입정, 하다>에서 안무를 하고 출연했죠. 이후에는 대학로극장 퀴드 첫 제작공연인 안무가 송주원의 <2022 휘이잉>에 무용수로 참여했습니다. ”

“ (스스로 예술가임을 느낄 때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때? 사실 스스로가 흔히 말하는 예술가의 성향과 먼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술은 정체성보다는 실제 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더 경계하려고 합니다. 예술가라는 자기 규정이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만 좋은 ”



작품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가치와 맞바꿀 수 없는 벽찬 기쁨을 느낍니다. 그럴 땐 선물처럼 주어진 그 시간, 환경, 작품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시간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

“ 지금은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모럴패닉24>라는 작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뜨거운 참고육 열풍이 정말 정의와 가까운 것인가?'라는 의아함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미디어의 전달이 중립적이지 않음에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공감하고 분노하며 심판자가 되는 스펙터클을 즐기는 개인의 폭력성을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

“ 저는 주로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영화의 미장센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극을 받은 몸의 감각을 작품 안에서 재현해보려고 해요. 작품의 주제는 주로 제가 살고 싶은 방향, 삶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

“ 파리의 피노 컬렉션^{Pinault Collection}에서 본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Him>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릎 꿇은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겸손함과 경건함마저 느껴져 가까이 다가갔는데, 히틀러의 얼굴로 노려보는 눈을 마주치고 얼어붙었습니다. 순수함이라고 설부르게 착각하고 다가간 제 자신의 안일함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 목표 지향적이라 결과물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성향이 조금 강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창작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무용에서 보통 공연 기간은 2~5일로 짧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그에 비해 10배의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그 기간에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연결해서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현재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강민우

박정은

음악/현대음악

b.1986

youtube.com/@jungeunPark0816

2024 유망예술지원 선정

“저는 화려하고 강렬한 표면의 음향과 깊고 어스름한 내면의 소리, 동시대 음악을 쓰는 현대음악 작곡가 박정은입니다. 주로 동서양의 어쿠스틱 악기로 작곡을 하고 전자음악과의 결합, 다른 예술 분야와의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작곡 공부를 마치고 약 8년 전 귀국해 현재 음악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개인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 유럽의 다양한 현대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여러 앙상블,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크고작은 무대에서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창작하고 있으며,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며 작곡가로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음악이 재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찬송가를 변형하고, 뒤집어 연주하고, 편곡하고, 즉흥으로 연주하고 신나게 놀며 음악을 접했습니다. 피아노·기타·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까지 연결됐고, 서양음악의 역사와 음악의 형식, 화성학, 대위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곡을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오르간 솔로 작품 ‘필연’-Yeon 2015, 앙상블 작품 ‘소란’-ran 2017, 오케스트라 작품 ‘Re-MU 麴 다시, 날다’ 2021 등이 있습니다. 한때



‘음향(소리)’보다는 ‘구조’에 천착하던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규칙을 조합하며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건축가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에 앞서 규칙을 설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가장 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으로 음향의 열개를 촘촘하게 엮어나갈 때도,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귀에 들리는 ‘음향 덩어리’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많은 규칙으로 조합된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리 그 자체와 마주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악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내보고, 악기를 바꾸거나 변형하기도 하며, 기존에 본 적 없는 앙상블을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섬세하게 작동하는 소리의 감식안을 발달시키게 되었으며, 악기의 음향에서부터 악기에서 기대한 적 없던 음향, 악기가 아닌 것의 음향 전부를 음악의 범주 안에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든 곡이 제 대표작 중 하나인 ‘필연’, ‘얼룩진 잔향들’ 2019 등입니다. 귀국 후 저는 여전히 소리를 고민하되, 소리 안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세상과 이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란’에 등장하는 뜻 모를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곡은 직접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은

‘소란’에서부터, 공동체라는 개념을 고민한 ‘타자의 소리’ 2020까지 다양합니다. 귀국 직후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한 전체적인 키워드는 동시대 속의 ‘타자’와 ‘관계성’입니다.”

“오는 10월 18일, 2024 유망예술페스티벌에서 실험무용음악극 <질곡: 차꼬와 수갑>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다른 예술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설치 작품을 제작하고 배우와 함께 브리지를 만들고, 무용수와 함께 안무를 이야기합니다. 학제·장르 간 경계가 없는, 동시대에 부합하는 다원예술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해 보는 중입니다. 시대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관계성에서 나오는 생각, 문제점, 본질, 감정 등을 함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의 ‘인간적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작업을 하는 동료나 다른 분야의 예술가에게서 영감을 받습니다. 책이나 뉴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종종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생생하게 삶을 경험하고 몸을 움직이며 세상에 내 몸을 던지듯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 2024 유망예술페스티벌 중간공유회
↑ 8월 아트스페이스 서촌에서 열린 <탈출> 중 작곡 퍼포먼스

“최근 김정 연출의 연극 <연안지대>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대사가 아름다웠습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이 주는 마음의 울림과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죽음에 대한 통찰을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극중 사배 역할을 맡았던 공지수 배우와 10월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실험무용음악극에 이어 12월 19일 개인 작품 발표회 <Signal>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작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예술의 정의와 역할에 질문을 던지고, 예술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되짚는 작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음악을 쓰는가, 어떤 음악을 쓸 것인가, 그 음악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당장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을 고민하며 저만의 새로운 소리, 구조, 악기, 기술적 결합 등을 탐구함으로써 독창적인 언어를 꾸준히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정형적이고 이질적인 구조를 가져 청취 경험의 확장, 예술 감각의 확장을 통해 ‘예술적 자유’와 ‘해방’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강북팀 홍유나 우리가 예술로 하나 되기를

에듀케이터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다재능한 당신이 궁금해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에서
'서울어린이취타대' 사업을 맡고 있는
홍유나입니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잘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교직
과정을 이수했고 교육학이 저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죠. 이를 계기로
졸업 후 미술관 교육팀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후 에듀케이터로 근무하며 어린이·청소년·가족
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술과 예술교육의 접점에 끌린 이유가
있나요. 예술교육이 사람들의 관심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게 됐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작품에 담긴 이야기나
작가의 생각, 작업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깨닫게 되고요. 이런 점들이 예술교육의
매력인 것 같고, 저도 덕분에 관점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쉽고 재밌게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시각예술은 물론이고,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재단의 폭넓은 영역과 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싶어 2022년 입사했죠.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예술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값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지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메세나 제휴 사업인 가족소통 프로그램
'빼꼼'을 운영했다고요. 예술을 매개로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담당했던 2023년에는
아날로그 감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추억이 담긴 자투리
천을 이어 붙여 완성하는 패브릭 콜라주 워크숍,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한 가족 동화책 제작
워크숍을 5주에 걸쳐 진행했고, 총 17팀의 가족이
각자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기에 이르렀죠. 가장
뿌듯했던 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의도가 협력
예술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잘 전달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을 때였어요. '가족과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서',
'예술가의 열정이 느껴져서' 이 프로젝트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는 후기가 생각나네요.
예술가와 참여자, 그리고 사업 담당자 모두 하나
되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11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어떤 곳인가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전통예술 기반 예술교육센터입니다.
어린이부터 장·노년층까지 온 가족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나긴 준비를 거쳐
11월 중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11월부터 약 한달간 개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개관식에서는 풍물패의 길놀이, 국악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기반 예술교육에 관해 논의하는
특별 포럼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 후 약 한달간
워크숍·상설전시 등 시민이 전통예술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말마다 서울어린이취타대 단원들과
만나고 있다고요.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던 중
'취타대'를 접하게 됐어요.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선두에 서서 황금빛 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취타대가
사용하는 태평소·나발·나각·용고 등 우리 전통
악기도 새로웠고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취타를 배우고, 나아가 서울시·서울문화재단
대표 행사에서 취타대로 공연할 수 있다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5월과 6월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1기 단원을 모집했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데다 7월부터 11월까지 17회에
걸쳐 긴 호흡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모집에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가 무색하게도 200명 넘는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했어요. 4.2 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단원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악기 교육만
아니라 취타대 의상 일부도 직접 만들어보고
전통 춤사위를 높이 형식으로 배워보는 등
우리 센터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첫 수업에는 악기 잡는 것도
서투르던 단원들이 치열한 연습 끝에 9월 28일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는 개관 행사는 물론, 내년까지
서울시와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에서 저희
단원들의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일상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어렵거나 나와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일상에서 예술을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걷는 거리에서 공연이나 축제를 만난다거나, 동네
가까운 곳에서 연주회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기는 것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예술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소소한 경험이 모여
내 마음속에 예술이 배어든다면 좋을 거예요.
그게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여행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여행하며 만나는
자연과 풍경, 음식, 건축, 그리고 여행지만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영감은 물론 에너지도
받거든요. 여행하면서 소품이나 빈티지 물건,
식료품이나 잡화, 책을 판매하는 독특한 곳들을
꼭 찾아가는데요. 그런 곳에서 공간의 콘셉트와
디스플레이, 음악 등등을 통해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오곤 합니다.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제 스무살 시절을 떠올려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설렘과 모험심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스무살이 된 재단과
시민·예술가가 함께할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 역시 그 곁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며 의미 있는 사업을 계속 꾸려갈게요.
재단이 다음 20년 뒤를 맞이하는 날까지 쭉
즐거운 모험을 지속하기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기울기를 기울일 때 서울장애 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시

《기울기 기울이기》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14기 입주작가6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로, 김은정·김진주·이기언(라움콘)·박유석·윤하균·허겸 작가의 작품 30여 점으로 구성된다.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주관하고, 효성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의 차별점은 ‘모두를 위한 전시’다. 쉬운 해설, 수어, 오디오 가이드, 점자와 스크린 리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외에도 색약자를 위한 보정 안경, 저시력자를 위한 촉감 감상 도구, 어린이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도슨트 등을 추가해 다양한 관람객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절한 전시를 준비했다.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각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가지고 산다. 개개인이 가진 기울기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 문유진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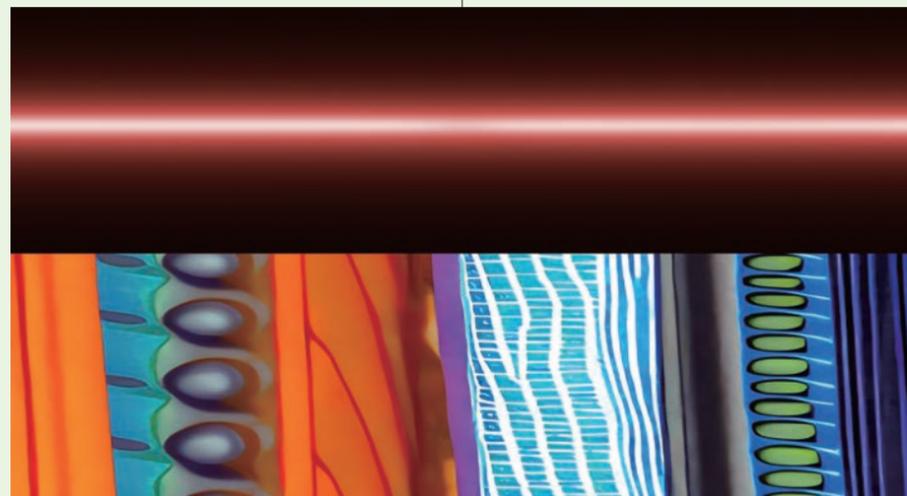
↘ 박유석, 《교차》, 2024

↓ 김진주, 《마로니에 식물-열매가 되기 전에...》(백목련), 2023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울기, 때로는 완만하게 때로는 가파르게, 누군가는 곧게 누군가는 둥글게 움직이며 서로 만나고 관계하는 기울기들 앞에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공통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작가는 자신만의 기울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기울기와 만나고, 자신의 기울기에 다른 기울기를 더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기울기를 기울이는 행위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기울기’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자가 가진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30대 여성은 너무 어릴 수 있고,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 아이들조차 키가 작아서 혹은 너무 커서 탈 수 없는 놀이 기구가 있다. 기준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각자의 기울기가 생긴다. 평균이라는 것에서 조금 달라지면 ‘기울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 윤하균, 《괴물》, 2022

↓ 라움콘, 《환영》, 2024



↑ 허겸, 《서울 no.9-Before sunset》, 2024

← 김은정, 《Ethereal Breath (Shashah)》, 2024

여섯 가지 기울기 들여다보기

작가와 작품을 알고 전시를 관람하면 깊은 이해를 통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워크숍으로 보완한 작가 노트와 비평가의 글도 전시실에 제공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소개와 작가 노트를 짧게 살펴보자.

① 김은정은 귤가에 속삭이는 소리의 다정함을 얇은 툴이 둘러싸인 공간으로 풀어낸다.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 겹겹이 스치며 만들어지는 소리는 우리의 피부로 전해진다. 시각과 촉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아스라이 사라진 순간들을 내 앞에 되살려낸다. 가벼운 천을 들고 공간을 휘감는다. 내 몸을 감싸며 퍼져나가던 손끝의 간지러움이 한 번 두 번 공간에 멈춘다. 가볍게 나를 스치던 순간은 켜켜이 겹겹이 겹겹이 무뎠어 오른다. 흰빛의 숨결과 노란색 스치-움, 살갓빛 속삭임, 분홍

힝쌔임……. 어느 순간 천장과 벽과 바닥은 사라진다. 공간은 뿌옇게 공기의 움직임으로 둘러싸인다. 당신이 내쉬었던 숨결로 가득 찬다.” (김은정 작가 노트 발췌)

② 김진주는 존재감이 미약한 들풀에 집중한다. 가느다란 단색의 선 드로잉은 식물도감처럼 정확하고 섬세하다. 오랜 시간 관찰한 드로잉은 식물의 생태 변화와 함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라 불리는 풀들은 이 지구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반해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 땅에 납작하게 퍼져 있어 마구 밟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발이 풀 위에 있는지 의식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땅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우리(사람들)는 그 존재를 무시한다. 그러나 당신이 무심코 밟은 구둣발 밑의 풀(잡초)은 시련을 견디며 여실히 자라고 존재한다.” (김진주 작가 노트 발췌)

③ O레이터(이기언)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산을 주제로 《환영》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산악 팀의 일원이었던 작가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과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한 산을 빚어 올린다. “정복하기엔 너무 힘들다. 관찰하는 법, 그래 그거다.” (라움콘 작가 노트 발췌)

④ 박유석은 인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빛과 소리로 표현한다. 안정감과 불안함의 대비를 통해 변화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분열과 확장을 거듭하는 세포의 움직임과 같은 미디어는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우게 한다. “밖을 나서는 길에 문득 맑은 하늘과 내리쬐는 햇살에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낀다. 마치 나를 이끄는 듯한 손짓, 머리 위에서 관망하는

시선, 떨어져 나간 객체가 주변과 다시 융화되는 연결감, 언젠가부터 안과 밖을 나누던 경계는 이내 허물어지고 거대한 흐름 안으로 녹아든다.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생명과 죽음, 성장과 쇠퇴라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시성과 동시에 영속성을 이해하게 된다.” (박유석 작가 노트 발췌)

⑤ 윤하균은 괴물을 무서운 존재가 아닌 흐릿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했다. 연한 먹을 켜켜이 쌓아서 드러난 덩어리와 같은 괴물은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수호신이 된다. “새롭고 재밌는 것을 하고 싶어서 광목에 수묵으로 괴물을 그려보았다. 물론 먹을 연하게 풀어서 광목에 켜켜이 쌓아 올리는 작업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나는 괴물에게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데몬은 중세 시대에 들어와 악마의 의미로 변했는데, 어원은 원래 사람들을 지켜주는 정령, 수호신에 가깝다. 나의 괴물은 최대한 힘이 세고 날카롭고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우면 좋겠다. 이겨야 하나. 이긴다는 의미는 불행은 막아낸다는 것이고, 잘못된 질서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다.” (윤하균 작가 노트 발췌)

⑥ 허겸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을 단순화하고 건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도시 풍경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낀다. “나는 건물들을 블록처럼 쌓고 서로 이어 붙이듯 붓으로 경계선을 다시 칠해 희미하게 만든다. 작업 과정 중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원경을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데, 지나치게 선명한 사진을 실제 내 눈이 보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해상도 등을 조정하고 이 이미지를 참조해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풍경은 더 멀어지고 모호해진다. 내가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알 수 없게 되고, 늘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그 모호함과 거리감이 나쁘지만은 않다.” (허겸 작가 노트 발췌)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매주 토요일 11시 쉬운 도슨트가 준비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시실에 들러 여섯 작가의 기울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기울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고정되지 않는 감각을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기울기 기울이기 Art of tilting》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7시(오후 6시 입장 마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예술로 오늘의 안녕을 건네는 심장생: 안녕의 풍경

지난 5월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시민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는 <심장생: 안녕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예술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당신의 안녕을 묻는 다정하고 따뜻한 예술

'심장생'은 예부터 오래사는 것을 상징해온 열가지의 것이다. 열가지 소재는 시대와 구전되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나와 누군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만은 늘 우리 곁에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심장생: 안녕의 풍경>은 이러한 심장생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동양과 서양을 잇고, 지난날과 지금을 잇는 오늘의 심장생을 제안한다.



공간에 방문하면 '종이와 심장생', '음악과 심장생', '그림책과 심장생'으로 구성된 상설 체험장에서 장르마다 특색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공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종이와 심장생'에서는 페이퍼 아티스트 박종이와 협업해 종이로 만든 심장생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벗어나 종이로 만들어진 물과 산속을 거닐며 돌과 거북 그리고 학을 만나면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느끼고 나와 누군가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다.

'종이와 심장생' 공간을 지나 만나는 '음악과 심장생'에서는 클래식 음악 공간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아파트먼트 프란츠와 협력해 심장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8곡의 클래식 음악을 LP 음반으로 들을 수 있다. 도시의 소음은 잠시 멀리하고 헤드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친절한 곡 설명과 음반 커버도 함께 살펴보면 심장생과 클래식 음악을 연결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작은 서가로 꾸며진 '그림책과 심장생'에서는 옛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비캉스 프로젝트의 강혜숙·이수지·조은영·한성민 작가가 함께했다. 네 명의 작가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오늘의 심장생>은 심장생을 소재로 한 열 권의 작은 그림책이다. 지금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심장생'이라는 소재를 오늘날의 심장생으로 재해석해본 이 그림책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렇게 네 작가의 새로운 시선과 개성이 담긴 그림책 열 권을 읽는 동안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을, 때로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간에서 느낀 다양한 경험을 하나의 '풍경' 안에 담아갈 수 있다. 오방색 종이로 풍경 갖을 직접 만들고, 클래식 음악과 그림책 속 심장생의 열가지 문구를 골라, 오늘이나 혹은 누군가의 곁에 오래도록 둘 수 있는 '안녕의 인사'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심장생: 안녕의 풍경>은 공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술을 통해 건네는 이 평범한 '안녕'의 인사로, 예부터 이어지던 선조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의 다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시간 속에서 서로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버겁고 무거운 일상을 버티고



있다면 한 번쯤 이곳에 발걸음해보면 어떨까. 상설 프로그램은 12월 28일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일·월요일 휴관) 활짝 열려 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 외에 토요일에는 예술가·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해 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총 열 번의 특별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과 각자의 취향으로 예술을 즐기도록 구성했다.

10월 12일과 11월 9일에는 박종이 페이퍼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린다. 내 마음속의 안녕을 담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종이새와 종이꽃을 만드는 동안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보고, 작가의 시선으로 종이를 다루고 만지며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10월 19일에는 그림책 작가 그룹 비캉스 프로젝트의 조은영·한성민 작가와 함께 그림책을 만드는 창작 워크숍, 11월 6일에는 강혜숙·이수지 작가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강연이 이어진다. 그림책 작가가 '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시민도 직접 만들어보고, 귀담아들으며 다양한 관점을 경험해본다.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어지는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클래식 음악 전문지 편집장 세 사람과의 만남이 이뤄진다. 이지영(클럽발코니 편집장·9월 28일), 김희선(음악저널 편집장·10월 26일), 송현민(객석 편집장·11월 23일)이 각자가 아끼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끈다. 창작 워크숍,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대한 비둘기가 도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7년 전, 노후한 서울역 고가차도를 보행로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떠들썩했던 서울을 기억하는지. 시민들은 이 고가가 제2의 하이라인 High Line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 재생의 세계적인 선례, 뉴욕의 하이라인은 2009년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고가 철길을 자연 친화적인 공중 보행로로 탈바꿈한 1.6킬로미터 길이의 공원이다. 조경 및 공공미술로 꾸민 철로는 당시 '서울로7017'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모델로 한국에 크게 각인됐다.

대화를 끌어내는 하이라인의 작품들

하이라인의 연간 방문객 수는 무려 700만여 명이다. 시민의 쉼터이자 필수 관광 명소인 만큼, 이곳에 설치되는 예술 작품은 뉴욕시가 추구하는

↑ 이반 아르코트, <공룡>, 렌더링 이미지, 작가 제공
 ← 하이라인 파크의 보행자와 휴식하는 시민의 모습
 ©Timothy Schenk/Friends of the High Line

방향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다. 하이라인은 '대화'를 도시 생활의 필수 요소로 꼽고, 시민의 대화를 끌어낼 작품을 주기적으로 설치·교체한다.

2019년엔 대형 공공미술 작품을 위한 광장도 조성했다. 30번가와 10번가 교차로 위의 하이라인 플린스 High Line Plinth다. 한 작품이 1년 6개월씩 전시되며, 이곳의 작품은 보행자 외에도 10번가 도로를 지나는 이들이 매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10번가의 일일 통행 차량이 4~5만 대 정도라 하니,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만큼이나 수많은 시야에 노출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이곳에 오르는 작품의 위력은 대단할 수밖에.

그동안 플린스엔 공공 작품의 주제가 되지 않던 흑인 여성의 형상을 표현한 시몬 리 Simone Leigh의 <브릭 하우스 Brick House>(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 설치), 미국의 드론 전쟁을 비판한 샘 듀란트 Sam Durant의 <무제(드론) Untitled (drone)>(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 설치), 나무의 모습을 인체의 혈관처럼 묘사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한 파멜라 로젠크란츠 Pamela Rosenkranz의 <올드 트리 Old Tree>(2023년 5월부터 2024년 여름 설치)가 올랐다.

10월부터는 네 번째 작품인 <공룡 Dinosaur>(2024년 10월부터 2026년 봄 예정)이 설치된다. 이 작품은 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비둘기 조각이다.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된 이 거대 비둘기는 교차로 위에서 10번가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게 된다. 작품의 렌더링 이미지는 대중에 충격과 흥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제목은 작품의 크기와 비둘기의 조상인 공룡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작가 이반 아르코트 Iván Argote는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지만 멸종된 공룡처럼, 언젠가 인간도 사라지거나 인류의 후손이 비둘기처럼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이 작은 비둘기를 바라보듯 비둘기가 우리를 바라보는 풍경은 기괴하지만, 한편 작은 존재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다. 19세기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비둘기는 미국의 이민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만 이 작품이 시각적 흥미를 넘어 내포된 의미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뉴욕 시민은 과연 자신과 비둘기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비둘기를 해로운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인구의 3퍼센트가 앓고 있는 조류공포증 Ornithophobia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논란의 공공예술 작품들

공공예술은 한 예술가의 개념을 펼치는 팔레트이기 전에, 공공이 삶을 영유하는 장소에 세워지는 작품이다. 다양한 계층과 출신이 접하는 만큼 역사·문화적 맥락에 민감해야 한다. 이러한 민감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후 식민 지배와 인종 차별 관련한 기념물과 공공 조각품이 연쇄적으로 파괴됐으며, 미술관과 박물관에선 식민주의 역사가 깃든 작품이 재논의되고 있다. 공공에 전시할 대상과 내용에 관한 의사 결정에 시민들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예로 19세기 브리스틀에 세워진 에드워드 콜스턴 Edward Colston 동상은 그가 노예무역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2020년 강물로 던져진 바 있다.

플로리다 사라스타에 설치된 7.6미터 높이의 조각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역시 이 현상을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날의 키스를 담은 사진을 재현했는데, 사진 속 인물이 연인이 아니며 키스 역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일순간 성적 폭력을 담은 작품으로 전락했고, 이후 테러를 당했다.

장소와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된 작품도 있다. 1980년대 뉴욕 폴리스퀘어 Foley Square에

↑ 2023년과 2024년 여름 플린스를 장식한 파멜라 로젠크란츠 <올드 트리> 설치 전경 ©Timothy Schenk/Friends of the High Line
 ↑ 플로리다 사라스타를 장식한 대형 조각 <무조건 항복>(2005) ©The City of Sarasota

설치된 강철 벽 <기울어진 호 Tilted Arc>는 행인과 장소 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설치 작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접근은 신선했지만 실제로는 작품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광장의 경관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바람에 소송을 거쳐 결국 철거됐다.

대중의 눈길을 끌되 설치된 장소와 역사·문화적 맥락을 존중하고, 공공의 미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내재한 의미를 궁극적으로 만드는 일. 또 그것을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까지 해야 하는 공공예술. 그 과정이 지남함에도 불구하고 올림을 줄 대상의 범위도, 사회적 파급력도 커 예술가엔 늘 매력적이다. 울가를 설치되는 아르코트의 <공룡>은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까? 공공의 미적 욕구를 10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외의 면에선 꽤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소통, 뉴욕이 바라는 대화의 불씨를 지필 것인 점은 확실하다. 이 비둘기는 '바이럴의 시대'를 간파하고 있다.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접수기간

2024.10.04.(금) ~ 10.25.(금)
18:00 (KST, 한국표준시)

*원로예술지원, 창작공간 입주공모는 기간 별도 확인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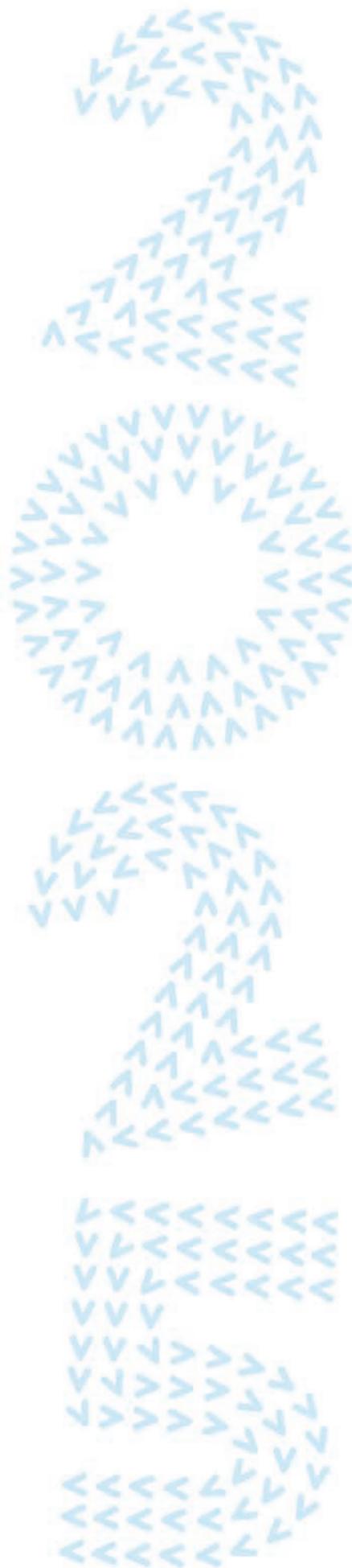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https://www.scas.kr/scas>

지원사업 안내 영상

2024.10.08.(화) 영상 업로드

서울문화재단 유튜브(스팍TV)
www.youtube.com/@sfacmovie



COULD
MIND

스크린 너머의 세상
모른채 지나버린 순간에 대하여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환상, 현실, 뒤섞임
삶의 책장을 넘기며
'Track 4'
동시대적 고전 읽기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하게 미끄러지기에
일상 결의 공예
럭셔리 브랜드의 공예 예찬

illust ©slowrecipe

모른 채 지나버린 순간에 대하여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그리운 얼굴이 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젊었을 적 얼굴이다. 사진 속의 얼굴은 어쩐지 가짜 같을 때가 있다.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일의 의미가 지금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했던 때,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약간 긴장했던 것 같다. 가족사진 같은 것은 특히 그랬는데,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보다 진지한 느낌의 어떤 표정을 '만들어' 카메라 앞에 선 듯한 사진들이 자주 보인다. 이런 사진들에서 눈이

참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짝 휘어 있다든가, 입꼬리가 들려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즐겁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사진들도 있기 마련이다. 어딘가 망연자실한 얼굴. 어딜 바라보는지 모르게 찍힌 사진. 그러니까 잘못 찍힌 사진처럼 보이는 어떤 흔적들 말이다. 표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흔적이라고 불러야 할 듯한 이런 표정들은 평상시에는 잘 숨어 있다. 혹은, 숨겨둔다. 이런 표정을 들키는 일은 마치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과 같아서, 여간해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든 가야 하는 사람의 표정. 어른으로 불리는 나이가 된 뒤 종종 짓게 되는 진실의 표정. 영화는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배우의 얼굴을 담아내는 데 수승인 매체다. 내가 사랑하는 영화적 순간들은

이렇게 '스치듯' '무심코' '포착된' 얼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순간도 연기가 아닌 적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얼굴 앞에 거울을 상시 들고 다니지 않는 내가 짓는 그 표정을,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도 능숙하고 빠르게 얼굴에서 감춰버려서 내가 미처 숙고해보지조차 못했던 그 표정을 천천히 깊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라 폴리가 감독하고 미셸 윌리엄스가 출연한 <우리도 사랑일까Take This Waltz>2011에도 이런 표정이 나온다.

마고는 출장길에 대니얼과 우연히 스친다. 시선을 교환하는 정도보다는 호감에 더 가까운 감정이지만 마고는 애초에 결혼한 몸이고, 출장길의 낭만을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알고 보니 대니얼은 마고의 집 앞에 살고 있었고, 마고는 남편 루와 다른 대니얼의 매력에 빠져든다. 마고의 남편 루는 이른바 친구 같은 남편이다. 성적이든 정신적이든 이꼴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위 중인 아내에게 찬물을 끼얹는(문자 그대로의 상황이다) 장난을 치는데 열중하는 사람이다.

대니얼은 다르다. 그렇다, 많은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에서도 '다르다'가 사람을 못살게 만든다. 마고는 몇 번이고 선을 긋고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거부하지만, 결국 항복한다. 이것은 많은 사랑 이야기에서 해피엔딩의 신호다. <제인 에어> 식으로 말하면 "독자 여러분이시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 경이에 찬 새 삶에 대한 암시. 그에 가까운 항복 선언. 하지만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 씨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의

몰락이 없던 일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모든 역경을 헤치고 함께하기로 했다고 해서 인생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법은 없다. 오히려, '콩깍지가 썰' 기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직시해야 하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사랑일까>는 다소 짓궂은 장난을 친다. 두 연인이 '마침내' 함께하게 한 다음, 그들이 온갖 체위로 섹스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다른 사람과 함께 스리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피날레에서,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마고는 세탁기 앞에 앉아 있다. 세탁기는 한참 돌아가는 중이고, 마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표정을 짓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희로애락이 모두 닳아 없어진 것처럼 앉아 있다. 곧 다시 일어나 여러 감정을 꾸미고 보여주겠지만 지금, 혼자 있는 지금만큼은 그 무엇도 가장할 필요가 없음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인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순간의 마고는 다소 고독해 보이고, 그것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길을 잃은 듯하다. 사랑이라 믿은 감정 다음 오는 것은 어차피 뻘한 일상뿐이라는 경고일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셸 윌리엄스의 얼굴이 보여준다.

마고의 표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영화가 <애프터썬Aftersun>2022이다. 우리는 사랑에 유난한 경향이 있어서 연인의 눈썹이 드리운 그늘이나 컷볼에 돋은 솜털을 늘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재발견하곤 한다.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슬프게도 죄책감은 사랑보다 커진다.)

살럿 웰스 감독의 <애프터썬>속 주인공 11살 소피는 아빠 켈럼과 튀르키예에서 며칠간 여름휴가를 보냈다. 아버지와 함께한 어떤 여름날의 추억을 캠코더의 조각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대목에서 <애프터썬>은 힘을 발휘한다. 어떤 장면들은 예전에 찍은 영상이고 소피의 추억 같지만, 또 어떤 장면들은 소피가 후일 상상 속에서 재구성한 장면 같기도 한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다정했지만 우울한 사람이었다. 영상 속에 찍힌 딸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는 성인이 된 딸은 그 뉘앙스를 알아차린다.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와 실제 겪은 시간을 바탕으로 극화한 이 영화는 마치 뒤늦은 사과 인사를 건네는 것도 같다. 알아차려야 했는데 모른 채 지나버린 순간에 대하여.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좌절을 느꼈는데, 나에게서는 캠코더 영상이 없으며, 그때 그 시절의 부모님 얼굴을, 뉘앙스로 가득한 표정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경제 형편에는 무리해서 떠나야 했던 휴가지, 체력이 제각각인 가족들을 낙오 없이 이끌어야 했던 매일, 입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소란스러웠을 식사 시간과 잠들 때까지도 쉬지 않던 재잘거림 속에서 한숨 돌리는 순간에야 무표정할 수 있었을 부모님의 얼굴을. 영화속 켈럼의 얼굴이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읽어내는 감정들을 생각한다. 내 것이 아닌 경험으로부터 내 경험을 길어 올린다.



환상, 현실, 뒤섞임

김효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작곡과 동기생 S와 나는 친하지 않았다. 입학 초기 학생 식당에서 동기 여럿과 나란히 앉아 밥을 몇 번 먹은 정도의 얇은 관계였다. 여고생 티를 벗지 못한 나와 달리 그는 말투와 태도가 성숙했다. 와글와글 물러다니는 무리에도 끼지 않았다. 그렇게 별다른 교류 없이 졸업을 맞았으니, 추억은 거의 없는 셈이지만, 그가 발표했던 한 곡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학기에 한 번씩 작품을 발표해야 했다. 악기 편성도, 악곡 형식도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완벽한 자유라는 조건은 영감의 밑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슈베르트 교향곡을 흉내 내고, 버르토크의 현악 사중주를 비슷하게 옮겨 적으며 꾸역꾸역 낙제를 모면하는 나 같은 이들이 있던 반면,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유의미하게 그려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어느 해의 발표회 날 그 친구는 피아노 오중주 정도의 편성으로, 클래식 작곡과 연습실에서 들릴 법한 도입부로 무난하게, 아름다운 협화음으로 곡을 시작했다. 그러다 아주 급작스럽게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을 마구 연주했다. 대중대중 영터리 연주였다. 그러다 다시 오중주 악곡을 성심성의껏 연결하고, 또 다시 갑작스럽게 통속적인 팝 발라드의

진행을 흉내 냈다.

이후 그와 곡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고전적인 음악만을 다루는 학교를 향한 저항이었을까? 고전음악의 미학을 논하면서 통속적인 음악을 써 돈을 잘 버는 선배들을 치켜세우는 학교 분위기를 향한 비판이었을까? 그저 일상의 묘사였을지도 모른다. 쇠베르크의 아방가르드 음악을 열심히 학습하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김동률과 소녀시대를 들었다. 아무튼 그날의 연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쇠베르크와 김동률과 소녀시대의 표상들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거칠게 널려 있던, 동기생 S의 15년 전 발표회가 떠올랐다. 진은숙의 '구갈론-Gougalon - 거리극의 장면들' 2009/2011, 하인츠 칼 그루버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971/1978을 각각 객석에 앉아 들으며, 이 두 작품은 각자 거대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 쇠베르크도 김동률도 소녀시대도, 그것들을 탐닉하고 또 비판하는 현대인의 모습까지 하나의 상징처럼 무대 위에 세웠다. 가치 판단이나 정치 선언을 직선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작곡가가 새로이 그린 현실과 환상의 모호한 경계로 듣는 이들을 불러냈다.

존 케이지가 권위 있게 아름답던 피아노를 무대 위에서 치워버리고, 마르셀 뒤샹이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놓은 지도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장면들을 현대의 우리는 인터넷 속 복제된 이미지로 본다. 위대한 클래식 전통도, 모나리자에 쿡수염을 그리는 혁신도 똥땅 납작해져버린 오늘날을 냉소하는

대신, 납작한 그 순간들을 다시 입체적인 가상 세계로 불러 세우는 게 현대의 창조적인 음악가들이 하는 일이다.

오스트리아 음악가 하인츠 칼 그루버의 '프랑켄슈타인!!'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TMF 앙상블의 기획 공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에서 들을 수 있었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아닌 시인 한스 카를 아르트만이 쓴 시집 『모든 종류의 소음, 새롭고 아름다운 동요 Allerleirausch, neue schöne kinderreime (Noises, noises, all around - lovely new children's rhymes)』의 일부를 텍스트로 삼은 오페라 작품이다. 프랑켄슈타인·드라큘라·슈퍼맨·배트맨 그리고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하던 배우 존 웨인 같은 인물들이 가사로 언급된다. 악당과 영웅에 대한 장난스러운 묘사와 이를 상징하는 음악적 표현들은 언뜻 듣기에 명랑하고 활기차지만, 그 깊은 곳엔 냉소와 비판의 어조가 커져서 씩여 블랙코미디로 다가온다. 길고 긴 음악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음악적으로 흥미롭게 불러들여 장르적으로 다채로운 것도 특징. 독창적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 7월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에>에서 소개한, 진은숙이 쓴 '구갈론-거리극의 장면들'의 제목은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다', '그럴듯한 수법으로 속이다'라는 뜻의 옛말에서 유래했다. 2008~2009년에 중국의 몇몇 도시를 방문한 작곡가는 좁고 어수선한 길거리의 풍경으로부터 1960년대 서울, 6.25 전쟁 이후 급격한 근대화가 시작되던 서울을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구갈론-거리극의 장면들'의 배경은

과거의 중국 어느 도시도, 현재의 서울도 아닌 가상의 세계다. '커튼의 극적인 걸힘', '대머리 여가수의 비가', '틀니 낀 점쟁이의 비죽거림', '병과 강통 사이의 에피소드', '악순환-판장집 앞에서 추는 춤', '돌팔이 의사의 땅은 머리를 추격하기'라는 제목으로 여섯 개의 모음곡을 연주한다.

낮선 소음이 파도처럼 쏟아지며 근현대의 생생한 소리 풍경을 창조적으로 묘사한다. 이 곡을 연주하는 18명 연주자에게 진은숙은 "연주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마추어처럼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요란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동시대의 초상 아닌가.

나의 동기생 S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내면의 판타지를 잘 배합할 자신만의 작곡법을 찾았을까. 음원 플랫폼에 그의 이름을 검색해 찾은 몇몇 개인 음반을 들어보니 아직 발견해나가는 중인 듯하다. 과감했던 그 표현력을 고유의 철학으로, 품위 있게 펼쳐 보이길. 동시대의 뛰어난 해석자를 기다려본다.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이 연주하는 진은숙 '구갈론-거리극의 장면들'



하인츠 칼 그루버가 노래하고 지휘하는 '프랑켄슈타인!!' (베를린 필 연주 하이라이트)



'Track 4'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고 있으면 어디선가 선물이 온다. 고생 많았다고, 요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냐며 말이다. 그건 사람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음악일 때도 있으며, 때로는 한 권 책의 형태로 온다. 『음악소설집』²⁰²⁴(프란츠)도 그랬다. 여름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하는 내게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선물이었다. 정그럽게 무더운 계절이지만, 시원한 곳에서 이 책에 흠뻑 빠지고 나면 여름은 한 뼘 더 흘러갔을 거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오랜 시간 흠모해온 다섯 명의 소설가였다. 김애란·김연수·윤성희·은희경·편혜영. 오래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같은 기획이 아닌 일반 단행본에서 이들의 이름이 나란히 쓰인 걸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심지어 이들이 음악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의 마음이 일렁였던 듯하다.

정작 여름의 한복판에서는 읽지 못하고 여름을 어느 정도 떠나보낸 시점에 책을 펼쳤다. 그리고 책을 덮을 때 깨달았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별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와 현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내 차례가 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매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을까? 마치 살면서 이별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음악소설집』, 42쪽

언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를 외국어를 배우며 옛 연인 현수와 함께 들었던 '러브 허츠(Love Hurts)'를 떠올리는 은미(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애인의 옛 모습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그와 노천극장에서 함께 들었던 드뷔시의 '달빛'을 천천히 기억하는 은희(김연수, 「수면 위로」), 허망한 교통사고로 영혼이 된 딸이 엄마의 꿈속에 들어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윤성희, 「자장가」), G시로 가는 KTX 4인석에 앉은 네 명의 낯선 이들이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긴 연주곡을 따로 또 같이 듣는 「웨더링」(은희경), 돌아가신 엄마의 옛 친구로부터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선물 받으며 엄마를 손에 잡히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 경주(편혜영, 「초록 스웨터」). 이들은 짧게는 3분, 길게는 50분 연주에 기대어 누군가를 혹은 지난 시절 속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오래 미적이던 자리에서 사뭇히 일어나 과거와 작별하고서 앞으로 나아간다.

I learned from you,
I really leared a lot,
really learned a lot...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배웠어.

『음악소설집』, 40쪽

현수가 은미에게 해석해준 '러브 허츠'의 가사를 같이 들으며 불현듯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음악은 늘 이런 식이다. 어떤 곡의 어느 가사에서 어떤 얼굴과 시절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음악의 힘은 무척이나 세서 어떤 시절의 마개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 마개를 열어 그 자리에 눈 깜짝할 새에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깜짝 놀라는 얼굴도 있고, 마땅히 떠오를 사람이 떠올라서 이내 마음이 미어지기도 한다. 나는 '러브 허츠'의 이 구절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P가 떠올랐다. 나의 이십대 절반을 함께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다정함으로 알고 있다면, 나의 다정함과 장난기,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능력의 대부분은 이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 친구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정말 많이 배웠다.

엄마가 남겨놓은 스웨터가 여러 사람의 흔적과 손길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다보면 어떤 관계든, 지금 곁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의 부피감을 늘려주었다는 걸 경주가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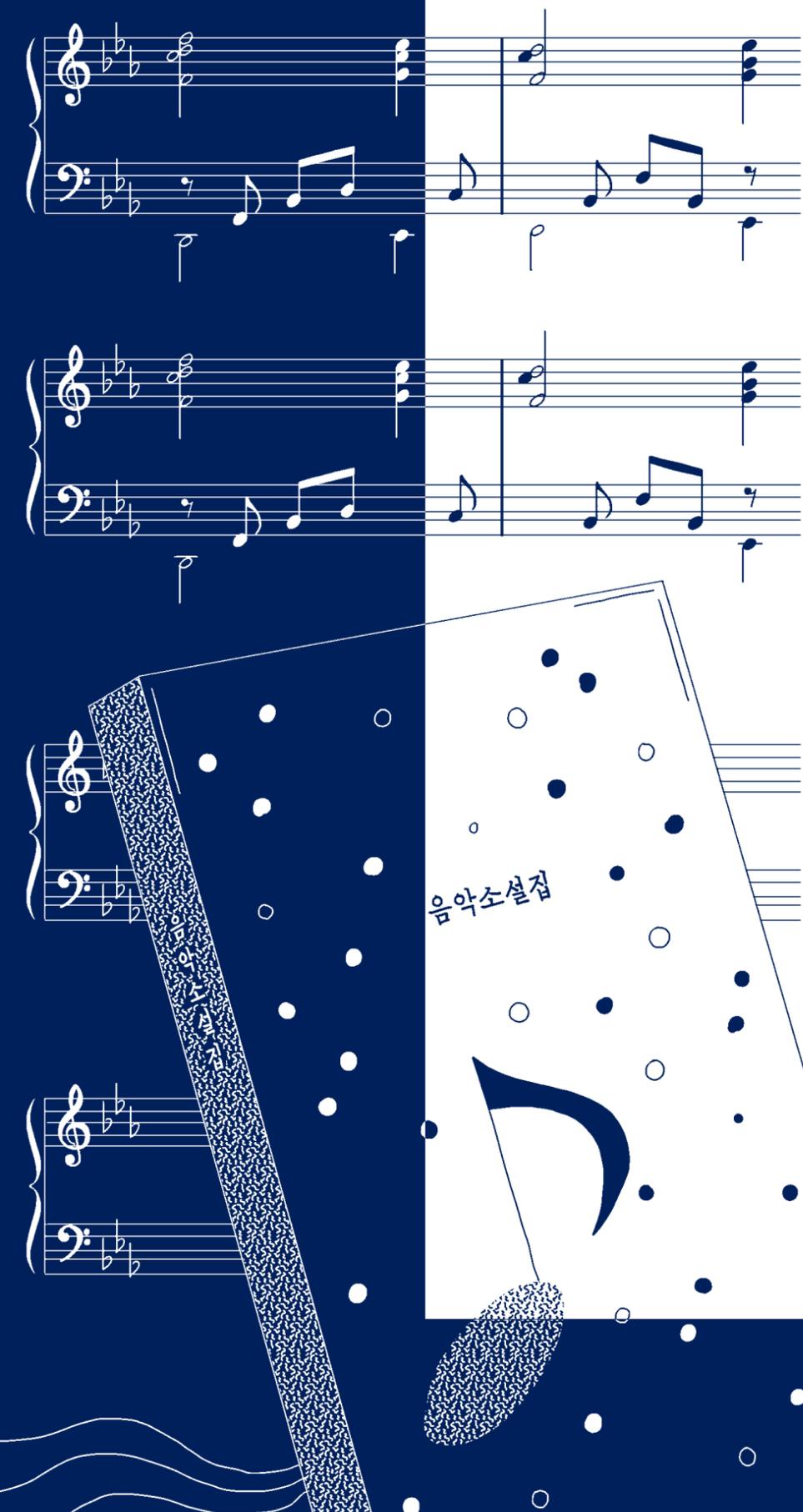
편혜영 작가 인터뷰, 『음악소설집』, 269쪽

수록된 소설이 좋았던 것만큼이나 편혜영 작가의 인터뷰 한 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게는 경주의 초록 스웨터가 음악이니까. 음악을 듣다 보면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들 덕분에 내 삶의 부피감이 얼마나 늘었는지 자주 깨닫게 된다. 최근엔 또 다른 한 벌의 초록 스웨터 같은 영화도

봤다. <록백>²⁰²⁴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십대 시절 그림을 함께 그렸던 두 친구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언제나 내 등 뒤에 있던, 그래서 나의 등을 선선하게 밀어주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응원하던 친구가 나온다. 참 좋아하는 뮤지션 나카무라 하루카가 영화음악을 맡았고, 둘의 아름다운 우정의 순간마다 잔잔히 흐르는 선율을 들으며 오래 울었다. 이런 책과 영화를 동시에 봐서였을까? P가 꿈에 나왔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정말 나오지 않던 친구였다. 꿈에서 꽤 후로도 며칠간 P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같이 좋아했던 곡을 들었다. 함께 들었기에 3분을 버티기 어려워 10년 가까이 듣지 않으며 견뎌온 곡이다. 재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오랜만에 들은 곡은 역시나 좋았다.

『음악소설집』은 그렇게 한번 더 귀한 선물이 되어주었다. 어떤 시절을 정말로 떠나보내는 재생 버튼을 누르게 해주었고,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내 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할 시간을 주었다.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그들이 내게 알려준 삶의 아름다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떠올렸다. 나의 일부를 만들어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은 채 살아 있게 된 사람들. 더는 015B의 음악처럼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갈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장기화와 얼굴들의 곡처럼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 버린” 이들에게, 이소라의 'Track 4' 가사로 인사를 건네고 싶다.

“안녕히. 이제 안녕히. 영원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원히.”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하게 미끄러지기에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든 공연은 불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행”이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언젠든 예기치 않은 실수나 사고가 일어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는 곳. 극장은 그런 곳이라고, 따라서 극장에 가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라고, 그 글의 필자는 말했다. 진정 그러하다. 공연을 보는 일은 기적을 함께 만드는 희열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또한 그처럼 생생하며 그 이상으로 흥미롭다. 무사히 도달한 승리만큼이나 불운을 목도하는 것 또한 관객의 큰 매혹인 것. 오랜 시간 공들인 창작자에게는 잔인한 말이겠지만, 어떤 작품은 온전히 공연되지 못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한다. 실패는 존재의 취약성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하면, ‘국립극단 74년 역사상 최초로 로봇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천 개의 파랑>(2024년 4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은 로봇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공연 개막 하루 전, 전반 10회차 공연을 취소했다. 창작진뿐 아니라 나를 포함한 초반 회차 공연 예매자 모두에게는 무척 애석한 일이었겠으나, “[과학] 기술에 감동하기보다 로봇 배우를 통해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던

장한세 연출가의 연출 의도는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전달된 셈이었다. 환불 안내를 담은 사과 문자에 존재의 취약함을 떠올리며 그 존재의 캐유를 기원했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로봇과 인간의 경계는 이미 슬며시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실 일찍이 로봇연극이 발의한 화두가 바로 존재의 취약함이었다. 2008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로봇 전문가와 함께 ‘로봇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일본의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Oriza Hirata는 로봇 배우를 개발하며 발견한 것을 ‘마이크로 슬립Micro-Slip’이라는 개념을 경유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손잡이가 있는 머그잔을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곧바로 손잡이를 꼭 잡거나 정확하게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마이크로 슬립’ 즉 불필요한 움직임이 끼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이크로 슬립’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리얼하다고 느끼며, 이런 까닭으로 “어떻게 하면 로봇에게 마이크로 슬립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가 ‘로봇연극의 최대 과제’라고 히라타는 말한다.(히라타 오리자·이홍이, 『로봇연극의 개념과 의의』, 『한국예술연구』 16, 2017)

끝끝내 우리의 행보는 정갈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 그런 점이 존재를 ‘인간적’이라고 믿게 하는 특질이라니! 왕도 왕좌도 없는 이 시대에도 고전의 인물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이크로 슬립 속에서 비틀거리다 파멸하고 마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Macbeth>(1607~1608

속 인물처럼, 유약한 인물들에게 마음이 간다.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의 예언에 완전한 악이 되지도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해 불안과 불면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인물, 맥베스는 분명 흥미롭지만, 나는—초연 당시 셰익스피어가 직접 연기를 하기도 했다는—맥베스 부인Lady Macbeth 쪽이 항상 더 궁금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떠한 허기와 갈증을 느끼고 살았기에 마녀의 예언을 전하는 남편의 편지 한 장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왕위 찬탈에 동조하고, 주저하는 남편을 다그치는가? 무엇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함께 잔인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일까? 그녀가 진정으로 갈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래도록 맥베스 부인은 ‘선량한 남편을 부추기는 악녀’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정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듯하다. 덩컨 왕 시해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초반부, 그녀가 무섭도록 경쾌하게 잔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맥베스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는 급격하게 활기를 잃고,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흔히 말하듯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하기에도 단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덩컨 왕의 죽음 이후 그녀가 맥베스의 ‘왕위 찬탈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맥베스는 그녀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귀여운 햇병아리는 모르고 있으라”(3막 2장)고 말한다. 그리고 이 대화 이후 정말로 맥베스 부인은 파트너의 자리를 잃는다. 따라서 그녀의 궁극적 절망은—‘왕위’의 모습을 했던 ‘살인’의 모습을 했던—남편과 함께 키워가고자 했던 ‘아이’를 또다시

상실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현재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으나 맥베스 부인은 “나는 젓 빨린 적 있어서 내 젓 먹는 아이의 애뜻함을 알아요”(1막 7장)라고 말한 바 있으니, 이들 관계의 역사 안에서 ‘아이의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상실의 흔적을 더듬어볼 수 있는 것이다.

기실 ‘아이의 죽음’이라는 모티브는 구로사와 아키라Akira Kurosawa 감독이 <맥베스>를 일본의 전국 시대로 옮겨 재창작한 <거미집의 성>1957에서는 임신과 유산으로 구체화하고, 아예 아이의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저스틴 커젤Justin Kurzel 감독의 <맥베스>2015에서는 맥베스 부부의 궁극적 결함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구현된다. 나 또한 길게 드리운 ‘죽은 아이’의 그림자를 <맥베스>에서 보았으나, 위 두 영화의 선택은—맥베스 부인을 야망이 들끓는 악녀로 그리는 것보다는 흥미롭지만—다소 싱겁게 느껴진다. 맥베스 부인의 기이하게 달튼 충동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결핍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휘청댔을까? 오히려 명쾌한 설명은 끊임없이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즉 마이크로 슬립을 이어가는 인간을 마주할 기회를 차단하지는 않을까? 약하다약하여 때로는 악해지고 마는 ‘우리’ 말이다.

앞서 언급한 ‘로봇연극 프로젝트’의 기수旗手, 히라타 오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에는 우주의 저 끝 풍경에서부터 인체 내부까지 대략 형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의 진폭으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연극 입문』, 2005, 동문선)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모호한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과학기술이 쉽 없이 발전하여 세계의 비밀을 속속들이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이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한결같이 무지하다는 것에 더욱 낙담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무지가 우리가 고전 희곡을 반복해서 읽는 까닭 중 하나라고 믿는다. 사건을 살아내고 있는 인간의 순간순간을 포착하여 구구히 설명해주는 대신 직접 대면케 하는 고전 작품들을 다시, 또다시 찾게 되는 이유 말이다. 적어도 동시대적으로 전면 재창작되지도 않은, 소위 ‘정통연극’을 찾는 까닭으로는 딱히 떠올릴 다른 이유가 없다.

*희곡 ‘맥베스’는 여러 버전의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으나, 이 글은 셰익스피어의 운문을 살려내고자 애쓴 최종철의 번역(민음사, 2004)을 참조했다.



럭셔리 브랜드의 공예 예찬

김수진 노블레스 라이프스타일팀장

9월 초, 일 년 중 가장 뜨거운 미술의 열기로 가득한 서울아트위크가 펼쳐졌다. 3년 차를 맞이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한국 대표 아트페어 키아프가 함께 진행된 코엑스를 주축으로 서울 곳곳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전시가 공개됐고, 예술계 인사들과 아트 피플을 위한 파티도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트 신의 찬란한 축제에 분위기를 더한 또 하나의 주체로 럭셔리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프리즈의 서울 진출 이후 아티스트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트페어

기간에 맞춰 특별 전시를 준비하는 브랜드가 하나둘 늘더니 올해는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이 대열에 동참했다.

아트위크 시기에 열리는 브랜드의 전시가 흥미로운 이유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철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트를 향한 열정과 자본의 합은 평소 쉽게 보기 어려운 색다른 전시와 프로젝트로 발현된다. 현대미술을 후원하거나 재단 컬렉션 전시에 집중하는 브랜드가 있는 한편, 공예에 초점을 맞추는 곳도 제법 많다. 특히 오랜 시간 수공예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쌓아온 브랜드일수록 공예의 가치를 조명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로에베LOEWE다.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스페인 태생의 브랜드

로에베의 공예 사랑은 패션계에서 이미 공식처럼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전 세계의 주목할 만한 공예가를 선정·후원하는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예 관련 전시와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패션·예술·공예·디자인 가구가 어우러진 ‘수집가의 집Collector’s home’을 테마로 연출한 국내 첫 단독 스토어 까사 로에베 서울을 오픈했는데, 내부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공예적인 요소가 가득해 화제를 모았다. 공간에는 “고유의 공식을 가지고 고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예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로에베의 예술적 행보에 앞장서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너선 앤더슨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스페인 핸드메이드 세라믹 타일로 장식한 벽, 맞춤형 펠트를 입힌 베린 클럽Berin Club 의자와 게리트 리트벨트가 디자인한 각진 위트레흐트Utrecht 및 스텔트먼Steltman 의자, 로에베의 시그니처 퍼퍼 벤치 시리즈, 영국의 섬유 예술가 존 앨런의 추상적인 풍경화 태피스트리를 재현한 스페인산 핸드메이드 울 카펫,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받은 일본 도예가 이나자키 에리코Eriko Inazaki와 한국 말총공예 작가 정다예의 공예 작품 등으로 내부를 가득 채웠다.

올해 아트위크 기간, 로에베는 이곳 까사 로에베 서울에서 2023 로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이재익 작가의 특별전 《삶의 형태Shape of Life》를 개최했다. 금속을 주재료로 만든 주얼리·가구·조명 설치물 등을 통해 개념적 사물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탐구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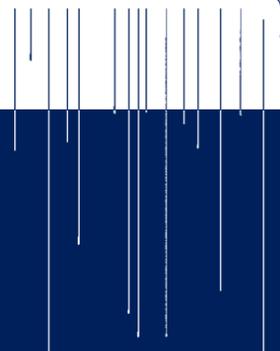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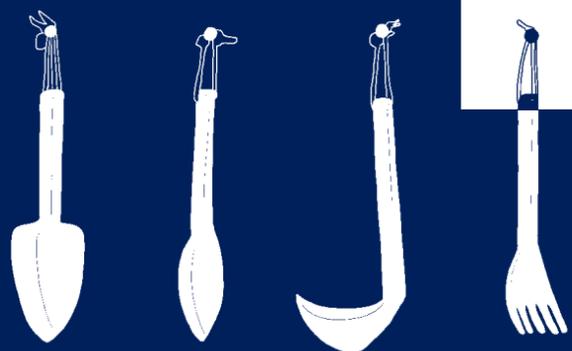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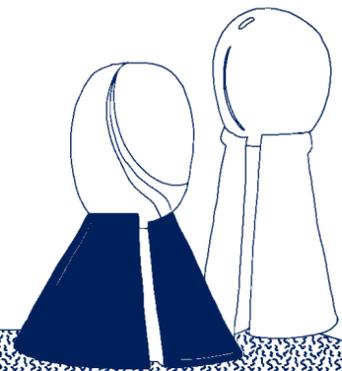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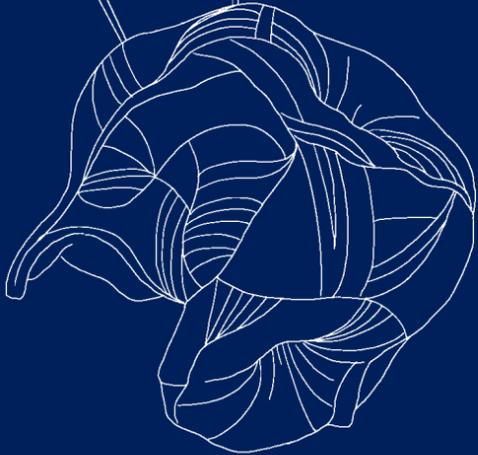
기존 작품은 물론, 새로운 시리즈 ‘트랜지션Transition’을 전시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인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포슬린 안료로 마감한 동 판재를 용접한 유기적 곡선 형태가 특징이다. 로에베와의 특별 협업으로 제작한 10점의 가죽 브로치 컬렉션 ‘라이프폼Lifeform’도 함께 공개해 주목받았는데, 브랜드가 주로 사용하는 가죽을 활용해 세포와 장기를 모티브 삼아 추상화된 생명체를 표현했다. 마치 과일이나 오브제를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형태와 감각적 색채가 시선을 끌었다.

프리즈 서울이 열린 코엑스 내에 부스를 마련한 브랜드 중에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쇼메CHAUMET의 협업이 단연 돋보였다. 올해 로에베 재단 공예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아티스트 김희찬과 함께 브랜드의 대표 컬렉션인 ‘비 마이 러브’의 고유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 것. 벌집과 조개껍질 등 자연에서 관찰되는 복합적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으로, 재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세심하게 조율하며 전체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가의 작업 방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료로 사용한 호두나무의 은은한 광택, 장인 정신과 자연적인 형태미를 부각한 우아한 외형이 아트페어를 오가는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한편 재단법인 예울과 함께 공예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3년째 전개하고 있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 샤넬은 아트위크에 조금 앞선 8월 말, 2024년

‘올해의 장인’과 ‘올해의 젊은 공예인’을 공개했다. 주인공은 대장장 정형구와 유리공예가 박지민. 정형구 대장장은 결혼 후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돕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장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난 후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전국의 유명 대장간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이후 건축 공구를 주로 제작해왔다. 2008년 승려문 화재 이후 복원 과정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문화재 철물에 관심을 두게 되어 현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의 젊은 공예인으로 선정된 박지민은 유리라는 투명 매개체에 불에 닿아 그을린 흔적을 남겨 추억을 기록한다. 일상속 작은 나뭇잎이나 종이 조각부터 시대성을 상징하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간직한 오브제를 수집한 뒤, 그 사물을 유리에 넣고 소성해 재와 그을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흔적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로 판유리에 작업해온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화병·그릇 등 실용적 형태의 작품에 새롭게 도전했다. 두 사람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예울 북촌가에서 10월 19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온도와 소리가 깃든 손: 사계절四季로 의 인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적 미감을 입고 재탄생한 철재 제품과 유리그릇이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와 어우러지며 인상적인 장면을 선사한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공예의 만남. 이들이 주목하고 조명하는 장인 정신과 수공예의 가치가 풍요로운 일상과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전례 없던 '추석폭염'을 겪고나니 당연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짧아지다가 어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가을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를 아껴 살아야지 다짐도 해 보았어요. 일 년에 딱 4일! '한강노들섬클래식' 오페라와 발레 무대가 펼쳐집니다. 노들섬에 오셔서 함께 가을을 만끽해 보세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COMMENTS

어느덧 [문화+서울]을 담당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올해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걸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다는 뜨개질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해내야 할 많은 것들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해 보자고 다짐해 봅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지원사업 안내 광고에서 '2025'를 발견하고 흥칫 놀랐다. 아니 벌써, 아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 3개월.

전민정 편집위원

CONTRIBUTORS

동에 반쪽, 서에 반쪽 더운 여름 구슬담 흘러내려 언제나 [문화+서울]과 함께해주는 작가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손민지 디자이너/아트디렉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로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쿼드초이스
2024



QUAD CHOICE



10.3 19:30
10.4 19:30
10.5 15:00 · 19:00
10.6 15:00

전석 5만 원
All seats 50,000 won

예매
대학로극장 쿼드
인터파크 티켓

Tickets Available at
SFAC Theater QUAD
Interpark Ticket

spaf

대학로극장 쿼드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작품



입과손스튜디오 IPKOASON

#Pansori

#LesMisérables

10.3-6 오류의 방

THE FALSE ROOM